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고 정 민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중학교 영어 듣기 평가 문항
분석을 통한 언어 이해

2008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김 화 경

중학교 영어 듣기 평가 문항
분석을 통한 언어 이해

고 정 민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김 화 경

인 준 서

김화경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최근에 실시된 중학교 영어 듣기 평가(English Listening Test)를 통해서 학생들의 듣기 이해과정을 전체 집단별, 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현재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영어 듣기 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듣기 이해과정을 밝히고, 문항을 듣기 이해과정별로 분류,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듣기 이해과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점수에 따라 학생들을 상, 하로 나누어 수준별 듣기 이해과정의 성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평가 도구는 2007학년도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듣기 평가 1회를 가지고 서울에 소재하는 중학교 1학년 4개 학급(총 110명)의 학생들에게 듣기 평가를 실시하여 답안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 도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평소의 학습 방법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여 학생들의 학습 성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집된 듣기 평가 자료의 분석은 고전검사 이론인 문항의 난이도, 문항의 변별도, 선택지 반응률 세 가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설문지는 백분율을 이용한 수치이다.

연구의 제 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리고 연구의 구성에 대해서 기술한다. 제 2장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듣기의 선행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접근법과 듣기학습의 전이효과에 대해서 알아본다. 또한 듣기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듣기활동의 분류를 살펴보고, 문항을 분류,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평가 도구로 사용된 듣기 평가에 대한 현황과 실시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고, 문항 분석 시 사용되는 고전검사 이론(문항 난이도, 변별도, 선택지 반응률)과 판단 기준표를 서술한다. 그리고 듣기 이해과정별 듣기에 도움이 되는 전략을 제시한다. 제 3장에서는 연구대상자 및 기간, 문항 분석 방법을 서술하고 문항 분류표를 이론에 적용하여 재구성한 분류표를 살펴본다.

제 4장의 연구결과에서는 듣기 평가의 이해과정별 구성을, 전체집단의 오답율, 수준별 오답율 분석결과를 설명하고, 오답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이유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설문지 응답을 바탕으로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학습 성향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 5장은 결론으로서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을 기술한다.

본 논문은 제2언어의 기초를 배우는 단계에서 듣기 이해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초보 단계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고급 단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 물론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으나 단계별로 느끼는 이해과정을 파악해 수준별 지도 시 도움이 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구성	4
II. 이론적 배경	5
1. 듣기 선행학습의 중요성	5
1.1 이해 접근법(Comprehension-based Approach)	5
1.2 듣기 학습의 전이 효과	7
2. 듣기의 과정	8
2.1 상향식(Bottom-up)과 하향식(Top-down) 듣기 과정	8
2.2 상호작용적 과정(Interactive Processing)	9
3. 듣기과정별 듣기 활동의 분류	12
3.1 Morley의 듣기 활동 분류	12
3.2 Peterson의 듣기 활동 분류	13
3.3 듣기 평가 문항의 분류	14
4. 중학교 영어 듣기 평가 실시 현황 및 목적	16
4.1 듣기 평가 실시 현황	16
4.2 듣기 평가의 목적	17
4.3 듣기 평가 문항의 유형	18
5. 영어 듣기 문항 분석 방법 및 판단 기준표	18
5.1 문항 난이도(Item Facility)	19
5.2 문항 변별도(Discrimination Index)	20
5.3 선택지 반응률(Distractor Efficiency)	22

6. 학습자에게 필요한 듣기 전략	23
III. 연구방법	29
1. 연구대상자 및 기간	29
2. 문항 분석 방법	29
3. 듣기 평가 문항 유형 분류표	30
IV. 연구결과	32
1. 듣기 평가 문항 유형별 구성율	32
2. 영어 듣기 평가 문항 분석결과	32
2.1 문항 난이도(Item Facility)	34
2.2 문항 변별도(Discrimination Index)	35
2.3 선택지 반응률(Distractor Efficiency)	37
2.4 이해 문항별 분석	39
3. 이해과정별 오답율 및 난이도(정답율) 분석결과	60
3.1 전체 집단의 오답율 및 정답율	60
3.2 각 집단별 듣기 평가 문항 분석	61
4. 초보자의 이해 과정 방해요소	65
5. 듣기 평가 및 듣기학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70
V. 결론 및 제언	75
참고문헌	80
ABSTRACT	83
부록(듣기 평가 및 설문지)	

표 목 차

<표 1> Morley의 듣기 활동 분류	12
<표 2> Peterson의 듣기 활동 분류	13
<표 3> 문항 난이도 산출 방법	19
<표 4> Cangelosi의 문항난이도에 의한 문항평가	19
<표 5> 시간상관표에 의한 산출방법	20
<표 6>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비율에 따른 방법	21
<표 7> 문항 변별도 지수 판단 기준	21
<표 8> 평가 문항 유형별 듣기 활동의 분류표	31
<표 9> 이해과정별 듣기 평가 문항 구성율	32
<표 10> 2007년 1회 듣기 평가 문항 분석	33
<표 11> 중학생 문항별 오답율 순위	34
<표 12> 문항별 변별도 지수	35
<표 13> 각 문항별 선택지 반응률	37
<표 14> 전체집단의 오답율과 정답율	60
<표 15> 상위집단의 오답율과 정답율 분석	62
<표 16> 하위집단의 오답율과 정답율 분석	63
<표 17> 집단별 오답율	64
<표 18> 듣기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I	70
<표 19> 학생들의 듣기 학습 성향 및 방법 II	7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에게 있어 영어는 더 이상 외국어가 아닌 제2의 언어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최근 국가 간의 교류는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진행되며 국가 간 상호 의존도는 점점 심화되고 있어, 국제적 경쟁과 함께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보 기술의 발달로 지식과 정보를 이해, 전달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영어는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언어로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해하고, 유대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어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를 살아가야 할 초, 중등 학생들에게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은 학교에서 길러야 하는 핵심적인 능력인 것이다. 영어로 의사소통 하는 능력은 곧 나라와 나라를 잇는 중요한 디딤돌이자 국가 간, 문화 간 이해와 신뢰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어의 기본교육을 받고 있는 중등학교 영어는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주제에 관하여 기본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¹⁾로 한다. 이를 위해 교육현장에서는 첫째, 평생 학습자로서 영어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와 자신감을 얻는 바탕을 마련하고 둘째,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화제에 관하여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르며 셋째, 외국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넷째, 외국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외국어과 교육과정(1)【별책 14】 2007년 7월 31일 발행

사회의 요구와 더불어 사람들이 영어의 필요성을 느끼고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함이다.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듣기능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듣기는 들은 것을 이해했을 때에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는다. 이는 듣기 활동이 상호작용적 과정임을 나타내고, 다른 언어능력(말하기, 읽기, 쓰기)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영어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인 의사소통은 현재 7차 교육과정의 목표이기도 하다. 즉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사소통 능력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서 의미 협상(negotiation of meaning)을 위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읽기와 쓰기보다는 주로 듣기와 말하기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의 기본이 되는 듣기 능력은 영어학습의 첫걸음이자 밑거름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듣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듣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 듣기는 단순히 듣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이해(comprehension)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언어 기능을 이해와 표현으로 구분 시 이해 기능에는 듣기와 읽기를 포함시키며 표현 기능에는 말하기와 쓰기를 포함시키는 분류 방법을 사용한다. 이해 기능이란 말하는 사람이나 글을 쓴 사람의 의도를 해석하는 과정으로 듣기와 읽기가 포함되는 개념이다. 학습자가 언어 습득 시 듣기입력을 통해 언어정보를 받아들여 내재화시키고, 말하기로 연결하여 언어사용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듣기학습이 선행되어야 말하기 활동이 자연스럽게 습득 될 수 있다.

그러면 언어학습의 발판이 되는 듣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떠한 이해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지 알아보고, 학습 성향을 알아보고자

현재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듣기 평가 시험을 가지고 듣기를 분석해 보도록 한다. 평가와 언어학습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듣기 학습을 살펴보려면 듣기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살펴보면 될 것이다. 교육은 평가에 준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므로 평가를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 후속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평가의 기준이 바뀌면 학습내용(방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평가는 다음 학습에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과거의 평가의 개념은 단순히 한 과정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나, 현재의 평가의 개념은 한 과정의 끝임과 동시에 다른 과정의 시작으로 역류효과(washback effect)와 진정성(authenticity)을 중시한다.

본 연구는 최근에 실시된 중학교 영어듣기 평가(English Listening Test)의 출제 유형을 이해과정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학습자들이 오류를 많이 범하는 유형을 살펴보고자 문항별 난이도(정답율, Item Facility), 변별도(Item Discrimination), 선택지 반응률(답지 반응률, Distractor Efficiency)을 이용하여 문항을 분석한다. 이 세 가지 문항 분석 방법(고전검사 이론)은 19세기 말부터 전개되어 현재까지 사용되는 이론으로서 비교적 간단한 절차에 의해 문항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평가방법으로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평가 방법이다. 문항 분석 후 듣기를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의 평가 도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듣기를 위한 학습 방법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 성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연구되었다.

연구의 제 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연구의 구성에 대해서 기술한다.

제 2장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듣기의 선행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접근법과 듣기학습의 전이효과에 대해서 알아본다. 또한 듣기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듣기활동의 분류를 살펴보고, 문항을 분류,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그리고 듣기 평가 현황과 목적, 이해과정별 듣기 전략 요소를 알아본다.

제 3장에서는 연구대상자 및 기간, 문항 분석 방법을 서술한다. 연구 대상자는 중학교 1학년(110명)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 도구는 2007년도 중학교 1학년 1회분을 가지고 실시하여 문항을 분석해 본다.

제 4장의 연구결과에서는 듣기 평가 문항의 이해과정별 구성률, 난이도(IF), 변별도(DI), 선택지 반응률(DE)을 살펴보고, 어떤 이해과정 문항에서 가장 높은 오답율을 보이는지 수준별로 알아본다. 그리고 오류를 범하는 원인과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은 결론으로서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을 기술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듣기 선행학습의 중요성

1.1 이해 접근법(Comprehension-based Approach)

언어의 4가지 영역 중 말하기는 적극적인 것으로, 듣기는 수동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나 실질적으로 듣기는 말하기의 원동력으로 의미협상을 하고자 적극적인 자세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의사소통 시 상대가 의도한 바를 알기 위해 단순 듣기가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듣기가 이루어진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모국어의 이해 능력에 초점을 두는 이해접근법(Comprehension-based Approach)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해 접근법에 속하는 이론으로 전신반응법(Total Physical Response)과 자연접근법(Natural Approach)을 들 수 있다. 듣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 James Asher(1965)는 전신 반응 교수법(Total Physical Response)에서 다량의 언어입력은 듣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나머지 언어 부분(speaking, reading, writing)도 학습된다고 보았다. 언어학습은 어린이의 모국어 습득 과정을 따르며, 학습자의 이해력은 신체적인 행동을 토대로 보다 신장될 수 있다는 원리 하에 진행되는 교수법으로 교실 수업은 명령형의 동사(command-based techniques)를 언어사용의 기본으로 한다. 즉 듣기 연습을 통하여 추상적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문법 구조, 세부적 인지지도(cognitive map)를 습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체적 행동을 통하여 영어를 습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조주의 언어학과 발달 심리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인본주의 교수법을 적용한 교수법이다. 전신 반응 교수법은 모국어의 습득 순서와 같이 언어 이해가 표현보다 먼저 습득되어야 하고, 두뇌의 양극화 기능

을 고려하여 좌측 두뇌에 편중된 외국어 교수 방법을 지양하고 우측 두뇌의 기능을 살려 표현 능력을 기르도록 하며, 불안감을 갖지 않고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론적 배경에서 출발한다. 또한 외국어 학습도 모국어 습득과 같은 자연적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말하기 이전에 듣기 능력을 길러주고, 듣기 능력은 신체적 반응으로 쉽게 습득이 되며 청해 능력만 있으면 말하는 능력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본다. 이 교수법은 이해력을 중시하고 압박감이나 불안을 느끼지 않는 수업을 통하여 언어 입력을 이해시키는데 역점을 둔다.

그리고 자연 접근법(The Natural Approach)은 자연주의 원리를 토대로 한 Krashen(1985)의 언어 입력 가설(Input hypothesis)을 주요 학습 원리로 사용되는 교수법으로 외국어 학습은 자연스런 상황에서 다량의 언어적 입력 제공으로 이루어진다는 기본 원칙에서 진행되는 교수법이다. 교사의 초기 임무는 이해 가능한 입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학습 초기의 이러한 침묵기간(silent period)동안 학습자는 스스로 발화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아무런 말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언어적 입력을 제공하는 원천이며, 흥미롭고 고무적인 여러 수업 활동들(명령, 게임, 촌극, 소집단 활동)을 창출하는 존재로 보았다. 그리고 언어 입력 가설에 따르면 외국어의 습득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지식수준보다 약간 높은 언어 입력을 제공하여 상황과 언어외적 정보나 상식으로 단서를 얻어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상적이므로 학습자의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이해 가능한 입력 자료(comprehensible input)를 제공해야 한다는 가설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교수법들은 듣기를 통해 목표언어의 규칙을 내재화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모국어의 이해 능력에 초점을 두는 교수법이다. 언어 듣기입력의 양이 많고 반복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기억하거나 내재화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 이러한 이유로 영어교육의 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으

로 보이며, 초등학교 3학년에서 1학년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9월부터 전국 16개 시·도에 ‘초등 영어교육 연구학교’ 50곳을 선정해 내년까지 2년간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이해 접근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듣기 학습의 전이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2 듣기 학습의 전이효과

듣기는 다른 언어능력, 즉 말하기, 읽기, 쓰기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앞서 언급하였다. 듣기는 말하기와 같이 구어(spoken language)를 매체로 활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실생활 회화에서는 들은 후 바로 적절한 응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듣기와 말하기는 상호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Lundsteen(1971)에 의하면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귀머거리가 되면 재교육 없이도 말하는 능력을 5년 내에 상실하게 된다고 한다. 병어리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증명은 말하기와 듣기의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듣기가 읽기에 미치는 영향은 읽기와 듣기 둘 다 표현기능이 아닌 이해기능 즉 수용적인 언어능력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듣거나 책을 읽을 때 어떤 자료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독해야 한다. 좋은 청자가 좋은 독자이며, 듣기를 잘 못하면 독해 또한 잘 못한다는 것이다. 이 둘은 심리학적으로 비슷한 과정이며, 상호 보조적으로 돕는다. 듣기는 말하기와 읽기에 관계된 것처럼, 쓰기에도 직접, 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받아쓰기(dictation) 능력은 이 두 언어능력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 주는 좋은 보기이다. 듣기능력이 향상될수록 강의나 연설 혹은 방송을 잘 듣고 기록할 수 있다. 또한 어린아이들이 들은 것을 토대로 말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통하여 듣기와 쓰기의 연관성을 잘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효과적인 듣기 능력은 말하기, 읽기 및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 단계인 것이다. 그러면 듣기 시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2. 듣기 과정

2.1 상향식(Bottom-up)과 하향식(Top-down) 듣기 과정

우리가 소리의 흐름(the stream of sound)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듣기 언어입력(input)을 처리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듣기의 과정에 대해서 Clark 와 Clark(1977)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는데, 이것은 언어의 이해를 심리적으로 기술하는 기초가 되었다.

- (1) 청자는 발화를 듣고 말소리의 음운적 표상을 청각 기억 속에 보유한다.
- (2) 청자는 내용과 기능을 파악해 가면서 음운적 표상을 구성 요소별로 분석, 조직한다.
- (3) 청자는 각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들은 말의 명제적 의미를 파악하며, 그 명제적 의미가 발화의 맥락 속에서 가지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한다.
- (4)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면 청자는 그것을 기억 속에 보유하고 음운적 표상의 기억을 지운다. 이때 청자는 구체적인 언어 표현은 잊어버리고 파악된 의미의 요지만을 기억하게 된다.

위의 듣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청자는 화자가 말한 모든 발화를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 요소별로 나누어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파악된 의미의 요지만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Richards(1985)는 듣기과정을 상보적인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하나

는 모국어 사용자와 고급 단계의 학습자가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과정인 하향식 과정으로 청자가 자신의 배경지식, 상황의 사전지식, 문맥, 논제 등을 이용하여 이해하는 과정, 즉 선형적 지식(schema)을 이용하여 언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무엇이 말해지고 있고, 무엇이 나올 것인가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듣기과정은 상향식으로서 화자는 의미 파악을 위해 개별 단어의 의미, 억양 등 여러 요소의 기초지식을 이용하여 해독하는 과정이 있다. 듣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말 전체의 이해(macro-skill)이므로, 초기 단계에는 발음, 낱말, 구조를 들을 수 있는 세부능력(micro-skill)의 학습이 필요하나, 초급 후반부터는 전체적인 이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Morley(1991)는 상향식 과정을 소리를 듣고 단어, 문법적 관계, 어휘적 의미 등으로 메시지를 파악하는 과정이고, 하향식 과정은 청자가 텍스트에 기존 지식, 광범위한 예측, 배경지식을 이용하여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즉 청자의 세부적인 언어 능력을 이용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상향식 과정이고, 하향식 과정(top-down processing)은 화자가 발화하는 내용에 대한 상황, 문맥, 화제 등에 관련된 청자의 배경지식을 통해 들은 내용을 추론하고 앞으로 들을 내용에 대한 예측을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다음은 이러한 상향식 과정과 하향식 과정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상호 작용적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2. 상호작용적 과정(Interactive Processing)

1980년대 초에는 오직 하향식(top-down) 과정만이 제2언어의 듣기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술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상향식과 하향식 듣기 기술이 통합되어서 이루어져야 하고, 언어의 듣기 이해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Peterson, 1991). 이 접근

법에 대해서 Anderson & Lynch(1988) 또한 듣기 이해과정을 상호작용적 처리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배경지식, 상황지식, 언어체계지식과 같은 여러 지식들이 상호 작용을 통하여 이해를 얻어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호작용적 접근법 이론에 대하여 Rixon(1981)은 듣기 이해과정을 듣기 목적, 정보검색, 정보선택, 이해점검의 네 단계로 보고 다음과 같이 그 각각의 단계를 정리하였다.

- (1) 듣기 이해과정은 왜 듣고 있으며, 무엇을 듣고 싶은가 하는 듣기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간파하는 단계이다.
- (2) 듣기 이해과정은 예상한 정보가 얼마나 발화에 포함되어 있으며 들어온 정보의 얼마가 새로운 것이고, 또 얼마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는 정보 검색 단계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 체계에 실제로 들은 내용을 비교하고 어긋나는 것을 찾아내는 모니터 작업과정이다.
- (3) 듣기 이해과정은 듣기의 목적에 비추어 메시지가 얼마나 관련되었나를 결정하고 중요한 것은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시하는 정보 선택 단계이다.
- (4) 듣기 이해과정은 질문이나 대답 등의 여러 방법으로 메시지의 이해도를 점검한다.

Rixon이 정리한 상호작용적 이해과정의 네 단계는 발화의 목적, 새로운 발화 내용을 기존 지식 체계와 비교하여 조정하기, 필요 정보 선택하기, 의미협상 단계를 거쳐 이해여부 점검하는 단계로 듣기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네 가지 단계 중 듣기 목적, 정보검색, 이해점검 단계는 하향식 이해과정에 속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선택해야 하는 정보선택은 상향식 이해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해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상호작용적 이해과정이다.

그리고 Peterson(1991)은 상호작용적 듣기 과정을 학습자가 어휘와 문장

을 파악할 때 그들의 선행 지식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상향식과정과 하향식과정의 조합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상향식 기법과 하향식 기법이 서로 상보적으로 작용하여 듣기과정에 적용하는 것으로, 들을 말에 대한 예상, 들을 내용에 대한 친숙도의 정도, 배경 지식을 이용하는 하향식 과정과 소리, 어휘, 어구 등을 통해 들은 내용을 이해하려는 상향식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를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분하여 나누고, 각 수준에 맞는 듣기학습의 기법을 상향식 기법, 하향식 기법, 상호작용 기법으로 나누어 듣기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상향식 과정과 하향식 과정의 단점을 보완한 상호작용적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세 가지 방식은 언어 자료와 학습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어느 한 가지 방식만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듣기 과정에 대해서 Harada(1998)는 원어민이나 숙련된 제2언어 학습자의 경우 상향식과정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제2언어를 배우는 초보자나 덜 숙련된 학습자에게는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초보 단계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실제로 하향식 이해과정보다 상향식 이해과정의 듣기 문항에서 더 어려움을 느끼고 언어적 문제를 발생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듣기 문항을 분류할 유형 분류표를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 장에서는 Morley(1991)의 활동 분류표를 상향식과 하향식 이해과정 중심으로 살펴보고, Peterson(1991)의 활동분류표에서는 상호작용적 이해과정을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한다. 그리고 듣기 평가 문항의 이해문항별 세부적 분류에 대해서는 크게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분류표를 토대로 분류하고자 한다.

3. 듣기과정별 듣기 활동의 분류

본 논문의 분석 도구인 듣기 평가 문항의 분류에 사용될 적용 가능한 듣기 활동 분류에 있어서 Morley(1991)과 Peterson(1991)의 이론을 중심으로 상향식, 하향식, 상호 작용적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상향식과정, 하향식 과정, 상호작용적 과정에 따른 듣기 활동 유형의 세부적인 분류는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분류표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1 Morley의 듣기 활동 분류

Morley는 상향식 듣기와 하향식 듣기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듣기 활동을 분류하였다. 그의 듣기 활동 분류는 듣고 행하는 형태의 듣기 활동에서 정보를 수정하고 사용하는 것이 주목표이며, 이러한 활동의 목적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함으로 결과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 > Morley(1991)의 듣기 활동 분류

결과의 종류	듣기 활동
듣고 행동으로 옮기기	듣고 난 후 지시, 묘사나 명령에 따라 반응하는 형태로서 듣고 그림 그리기, 듣고 지도상에서 길 표시하기, 듣고 사람이나 물건 선택하기, 노래나 게임을 듣고 몸, 손동작하기 등
듣고 정보 전이 시키기	들은 말을 다른 형태로 옮기는 것으로서 전화 받고 메시지 받아 적기, 듣고 빈칸 메우기, 듣고 표 채우기, 강의 듣고 노트 필기하기
듣고 문제 해결하기	게임, 퍼즐, 수수께끼 등을 듣고 응답하기, 녹음된 상황을 듣고 물건 사기 등의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표를 둬.
듣고 정보를 평가, 조정하기	정보의 원인과 결과를 평가, 정리되지 않은 정보를 듣고 원인과 결과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하는 형태
대화를 통해 상호 의미협상하기	정보를 반복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대담해 주는 과정을 통해 정보 전달이나 의미파악하기.
재미, 기쁨 위해 듣기	재미를 위해서 노래, 이야기, 일화, 시, 농담, 잡담 등을 듣는 형태.

위의 표에 의하면 듣기 활동의 결과에 따른 여섯 가지 분류로서 듣고 행동으로 옮기기, 정보 전달하기, 문제 해결하기, 정보 조정하기, 상호 듣기와 의미 협상하기, 재미를 위한 듣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듣기의 주목적을 들은 후 응답을 표현하는 것으로 언어적 행위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은 Peterson의 듣기 활동 분류표를 살펴보도록 하자.

3.2 Peterson의 듣기 활동 분류

Peterson은 단계별 듣기 활동을 아래의 <표 2>에서 설명하고 있다.

<표 2> Peterson의 듣기 활동 분류표

과정	단계	듣기 활동
상 향 식	초급	문장에 나타나는 억양곡선 구별하기, 음소 구별하기, 단어 끝부분(-ed) 선택적으로 듣기, 사진과 일치하는 단어 찾기, 필요 정보 고르기(날씨, 시간, 날짜, 가격, 전화 메시지 등), 짧은 대화 듣고 빈칸 완성하기.
	중급	강제 받지 않는 기능어 찾기, 축약, 연음현상 파악하기, 세부정보 파악하기(변경된 스케줄 달력에 체크하기).
	고급	문장 속에서 단어 의미 파악하기, 강의 듣고 상세정보 채우기.
하 향 식	초급	감정적 반응 구별하기, 문장의 요지 및 주제 파악하기, topic 인식하기(대화 장소, 대화 내용, 설명하고 있는 그림 고르기).
	중급	짧은 대화나 라디오 광고 듣고 일치하는 사진 고르기, 내용 듣고 주제 및 동기 찾기, 중심생각과 뒷받침하는 생각 찾기(TV 프로그램 제목, 채널번호 등), 주제 찾기, 추론하기(장소, 시간, 대화하는 상대) 등.
	고급	강의 도입부분만 듣고 보기에서 주제 찾기, 강의 중심내용 파악하기, 해당 지문의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도표 고르기.
상 호 작 용	초급	특정 단어 듣고 연상되는 단어 생각하기, 특정 건물의 위치설명을 듣고 지도상에서 해당 건물 찾기.
	중급	어조 파악하기(문장이 공손한지 여부 판단), 일상회화체 문장에서 누락된 문법항목 채우기(Got some extra?에서 have you, 줄임 조동사 등), 문맥을 통해 다음에 올 내용 예측하기, 불완전한 자료를 제시하여, 배경지식을 활성화시켜 문장 이해하기(전화내용의 주제 찾기)
	고급	강의 도입부 듣고 예측한 후 배경지식과 비교하기, 문장 속에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올바르게 고치기.

위의 표를 요약하면 상향식 과정 활동은 특정한 요소에 초점을 맞춘 활동이고, 하향식 과정 활동은 화자의 의도, main idea 등을 찾는 것으로 청자의 선형지식이 포함되는 활동들이다. 그리고 상호작용적 과정 활동은 위의 두 가지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면 다음으로 평가 문항 분류 시 사용되는 듣기 평가 문항 분류표를 살펴보기로 한다.

3.3 듣기 평가 문항의 분류

듣기 평가 문제는 크게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를 묻는 세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실적 이해를 묻는 문항이 들려준 내용을 그대로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를 묻는 것이라면, 추론적 이해 문항은 사실적 이해를 묻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들은 내용의 이해를 토대로 추론하게 하는 문항을 가리킨다. 또한 평가적 이해 문항은 들은 내용의 타당성이나 정확성, 말하는 사람의 태도, 대화의 분위기 등을 듣는 사람이 판단하는 형태의 문항을 가리키는데, 추론적 이해 문항과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 사실적 이해 문항

의사소통 관점에서 내용의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영어 자체의 소리 구조와 소리 간의 차이 등을 이해하는 것도 듣기 능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사실적 이해 문항에 속하는 듣기 문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최소 대립 짝(minimal pair)의 발음 구별하기② 강세가 있는 단어와 없는 단어 구별하기③ 단어 강세의 유형이나 문장 리듬의 유형 인식하기 |
|---|

- ④ 축약된 발음 듣고 이해하기
- ⑤ 단어와 단어 간의 경계와 영어의 전형적인 어순의 유형 인식하기
- ⑥ 이름, 시각, 가격, 치수, 날씨, 거리 등 골라 듣기

듣기 자료 속에 포함된 이름, 시각, 가격, 연도 물건의 치수, 날씨, 거리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그대로 기억하여 답하게 하는 방식의 문항들(지도를 보면서 장소 찾아가기 등)은 사실적 이해 문항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즉 사실적 이해 문항은 구체적인 정보를 듣고 바르게 기억하는지를 측정하는 형태의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2) 추론적 이해 문항

추론적 이해 문항이란 들은 내용과 여러 가지 정황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만 묻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문항을 가리킨다. 듣기 평가 문항의 대부분은 추론적 이해 문항에 속하는데, 대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추론적 이해 문항에 속한다.

- | | |
|--------------------------|----------------------------|
| ① 대화의 지칭 대상을 그림에서 찾기 | ⑨ 대화 내용에 대한 이유나 원인 파악하기 |
| ② 그림 자료 보며 내용 파악하기 | ⑩ 앞뒤 말의 관계 파악하기 |
| ③ 도표나 도식 완성하기 | ⑪ 담화(독백)의 주제나 핵심 요지 파악하기 |
| ④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파악하기 | ⑫ 그림의 상황에 맞는 대화 듣고 고르기 |
| ⑤ 화자의 직업 파악하기 | ⑬ 상황 설명을 듣고 그 상황에 맞는 말 고르기 |
| ⑥ 전화를 건 목적 파악하기 | ⑭ 들은 내용의 핵심 어휘 파악하기 |
| ⑦ 말의 의도나 목적, 진정한 의미 파악하기 | ⑮ 상대방의 말에 대한 적절한 응답 찾기 등 |
| ⑧ 화자 간의 관계 파악하기 | |

3) 평가적 이해 문항

평가적 이해 문항이란 들은 내용에 대해서 수험자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답하기를 요구하는 문항이다. 즉, 들은 내용이 맞는지, 혹은 대화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태도나 대화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는지 등을 평가하고 판단하기를 요구하는 문항이라 할 수 있다. 이때 판단 시 들은 내용 속에 반드시 어떤 평가나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평가적 이해 문항에는 대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포함된다.

- ① 화자의 기분 파악하기
- ② 말하는 상황의 분위기 파악하기
- ③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 태도 파악하기
- ④ 들은 내용을 추론하여 적절한 결론 제시하기 등

지금까지 듣기 평가 문항을 구성하는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현재 중학교에서 듣기를 평가하는 도구로서 실시되고 있는 듣기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4. 중학교 영어 듣기 평가 실시 현황 및 목적

4.1 듣기 평가 실시 현황

작년까지 한 학기에 2회씩 년 4회 실시되어 온 듣기 평가 시험은 올해 (2007)부터 15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년 2회(1학기에 1번씩)로 변경되어 실시되고 있다. 전국에서 실시하는 듣기평가²⁾는 시·도 교육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http://www.kice.re.kr/kice/index>

청이 일정한 주기로 돌아가면서 매년 문항을 제작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학년마다 시험 시행일자는 다르나 매년 4월과 9월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듣기평가를 실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학년과 시행횟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매 회마다 EBS 라디오(FM)를 통하여 11시에 시작하여 약 20분 안팎으로 소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도구는 2007년도 4월 11일(수)에 시행된 중학교 1학년 1회 시험으로 약16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4.2 듣기 평가 실시의 목적

듣기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하기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학교에서는 듣기평가지험을 실시하고 있다. 중학교 영어 듣기의 목표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2007-79호)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다.

둘째,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주제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셋째, 영어로 된 외국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다.

넷째, 영어 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문화를 영어로 소개한다.

또한 중학교 1학년 듣기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1) 어조나 억양으로 화자의 느낌이나 정서를 파악한다.
- (2) 일상생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요지를 파악한다.
- (3)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일상생활에 관련된 말, 대화를 듣고 이해한다.
- (4) 일상생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 사항을 파악한다.
- (5)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사건의 순서를 이해한다.
- (6) 일상생활에 관한 말, 대화를 듣고 상황 및 화자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7) 일상생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과업을 수행한다.

4.3 듣기 평가 문항의 유형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진 듣기평가는 학년별 교육과정의 기준에 준하여 교육내용을 평가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출제된 문항의 유형을 살펴보면, 물건 사기 / 길 묻고 답하기 / 날씨 묻고 답하기 / 사과하기 / 감사하기 / 사람의 기분 / 시간 묻고 답하기 /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 두 사람의 관계 / 어색한 대화 찾기 / 장래 희망 / 사람의 행동 묘사 / 교통수단 / 마지막 말에 이어질 응답 문항 / 말하는 사람의 의도 / 전화를 건 목적 / 요일 묻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이번 2007년 4월 10일에 실시된 중학교 1학년 영어듣기평가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날씨표현 / 시간표현 / 교통수단 / 제안표현과 응답 / 가격 묻기 / 직업 묻기 / 전화 표현 / 장소 묻기 / 인물 및 행동 묘사 / 마지막 말에 이어질 응답 / 어색한 대화 내용 고르기 / 화자의 심정 고르기 / 도표 보고 고르기 / 두 사람간의 관계 고르기 / 필요정보 고르기 / 대화의 목적 고르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듣기 평가 문항은 인물 묘사, 화자의 심정 고르기, 전화 표현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할 문항 분석 방법과 평가 측정 기준표를 살펴보도록 한다.

5. 영어 듣기 문항 분석 방법 및 판단 기준표

문항에 대한 평가는 크게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한다. 질적 평가는 문항이 측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작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양적 평가는 피험자의 응답결과를 검사이론에 입각하여 문항난이도, 문항변별도, 문항 선택지 매력도를 분석한

다.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문항을 분석하는 방법은 1920년대 이후 개발되어 많은 이론적 발전과 더불어 응용되어 왔고, 아직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석 방법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문항 분석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5.1 문항 난이도(IF: Item Facility)

문항 난이도(정답율)는 문항의 쉽고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시험을 본 전체 수험생이 그 문항을 맞힌 비율을 백분율이나 소수점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이때 무응답도 틀린 답으로 간주한다. 문항 난이도를 계산하는 공식은 그 문항을 맞힌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다음과 같이 매우 간단하다.

〈 표 3 〉 문항 난이도 산출 방법

$P = \frac{R}{N}$	N: 총 피험자 수 R: 문항의 답을 맞힌 피험자 수
-------------------	----------------------------------

문항 난이도(IF)에 따른 평가기준에 대하여 Cangelosi(1990)는 다음과 같이 〈표 4〉를 제시하였다.

〈 표 4 〉 Cangelosi의 문항난이도에 의한 문항평가

문항 난이도	문항 평가
.25 이하	어려운 문항
.25 ~ .75	적절한 문항
.75 이상	쉬운 문항

문항 난이도에 의하여 문항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위의 표에 의하여 평가하면 난이도가 .30 미만이면 매우 어려운 문항, .30 이상 ~ .80 미만이면 적절한 문항, 그리고 .80 이상이면 매우 쉬운 문항이라 평가한다.

5.2 문항 변별도(DI: Discrimination Index)

문항 변별도란 어떤 검사의 개개 문항이 그 검사에서 득점이 낮은 학생과 높은 학생을 식별 또는 구별해 줄 수 있는 변별력(discrimination power)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문항 하나하나가 얼마나 수험자의 상하 능력을 잘 구분해 내느냐를 뜻한다.

변별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피험자 집단을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상위집단의 정답비율과 하위능력집단의 정답비율의 차이로 추정할 수 있다(Johnson, 1951). 이때 피험자 수를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따라 문항 변별도가 달리 추정된다. 어떤 하나의 특정 피험자 수를 배분하여 산출하는 방법만으로 문항의 변별도를 추정하기보다 여러 방법으로 살펴보는 것이 더 변별력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세 가지 산출방법으로 변별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시간상관표에 의하여 변별도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시간상관표는 상위집단의 정답자 수와 오답자 수, 하위집단의 정답자 수와 오답자 수의 네 가지 유형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수치를 구하는 산출방법이다. 집단을 나누기 위하여 먼저 피험자 수를 점수가 높은 데서 낮은 순서로 정리하고, 점수 상위 집단(H)과 하위집단(L)으로 이등분한다. 다음으로, 상위 집단에서 그 문항에 맞는 사람의 수를 세고, 하위 집단에서 그 문항에 맞는 사람의 수를 세어 아래의 공식에 수치를 대입하여 구하는 방법이다.

< 표 5 > 시간상관표에 의한 산출방법

D.I =	$\frac{HR-LR}{N}$	D.I = 문항 변별도 지수
	2	HR = 상위집단(50%)의 정답자 수
		LR = 하위집단(50%)의 정답자 수
		N = 사례 수

둘째, 피험자 수를 점수로 단순히 이등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세분하여 정확한 수치를 얻고자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을 더 세밀하게 33%로 나누었다. 그룹을 나눈 후 상위 그룹에 속한 학생들(33%)과 하위 그룹에 속한 학생들(33%)이 각 문항을 맞힌 비율의 차이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즉 상위 그룹 수험생들이 그 문항을 맞힌 비율(상위 그룹 정답율)에서 하위 그룹 수험생들이 맞힌 비율(하위 그룹 정답율)을 빼면 된다. 그 값을 전체 수험생의 수로 나누어 변별도를 구한다.

〈표 6〉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비율에 따른 방법

$D.I = \frac{HR-LR}{\text{전체 수험생 수}}$	<p>HR=상위집단(33%)의 정답자 수</p> <p>LR=하위집단(33%)의 정답자 수</p>
---------------------------------------	---

셋째, 총 피험자 수를 동일한 피험자 수에 의하여 두 집단으로 혹은 상위 27%와 하위 27%를 규정한 후 문항 변별도를 추정하기도 한다(Kelly, 1939). 이는 두 번째 방법과 유사하다 더 세밀하게 집단을 구분하는 데 차이가 있다.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정확하게 문항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세밀하게 집단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변별도 지수의 수준에 관해 Ebel & Frisbie는 문항 양호도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7〉 문항 변별도 지수 판단 기준(Ebel 1991:232)

문항 변별도	문항에 대한 판단
0.40 이상	변별력이 매우 높은 문항
0.30~0.39	변별력이 있는 문항
0.20~0.29	변별력이 낮은 문항
0.10~0.19	변별력이 매우 낮은 문항
0.10 미만	변별력이 없는 문항

위의 판단 기준표에 의하면 문항 변별도가 .40이상이면 좋은 문항, .30~.39에 속하면 변별력이 있는 문항, .20~.29에 속하는 문항은 변별력이 낮은 문항, .10~.19는 매우 낮은 문항, .10미만일 경우는 변별력이 전혀 없는 문항으로 적어도 수정 또는 제거하여야 할 문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항변별도가 높으면 검사도구(시험)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5.3 선택지 반응률(DE: Distractor Efficiency)

정답을 모르는 수험생들에게 각 문항의 선택지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선택지 매력도 분석, 답지 반응률 분석이라고 한다. 선택지 매력도는 대규모 시험에서는 수험생들의 반응을 문항별로 백분율로 계산하여 나타낸다. 예를 들어 어떤 문항에서 선택지를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거나 1~2% 정도의 수험생들만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지는 매력도가 매우 낮은 선택지라고 할 수 있다.

좋은 문항은 문항 난이도가 적절하며, 문항 변별도가 높고, 선택지 반응률이 균형 잡혀 있어야 한다. 즉, 정답을 제외한 오답지들의 반응률이 서로 비슷하다면 그 오답지들은 비슷한 매력도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지 선택형 반응률이 각 답지마다 약 20% 정도씩으로 비슷하다면 답지 자체는 매우 매력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대신 문항은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Christine Houba(1996)은 선다형 문항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측면으로 선택지의 오답의 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사실상, 어떤 오답들은 전혀 혼동을 일으키지 않아 오답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오답 분석을 함으로써 어떤 오답이 본래의 기능을 담당하는지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문항 분석 시에 사용될 세 가지 분석 방법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제2언어 학습 시 필요한 듣기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6. 학습자에게 필요한 듣기 전략

듣기의 이해를 돕는 학습방법으로 교사가 가르쳐야 할 효과적인 듣기 전략에 대해 Rost(2002, p.155)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원리를 제시하였다.

- 1) 예측하기: 이는 듣기 전 활동(pre-listening activity)과 일치하는 학습 방법으로, 듣기를 잘하는 학습자는 자신이 들을 것에 대해 예측을 한다.
- 2) 추론하기: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문장과 문장간의 관계를 잘 파악하여 추론하는 것은 학습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방법이다.
- 3) 감독하기: 듣기를 잘 하는 학습자는 자신이 무엇을 이해했으며, 무엇을 이해 못했는지 아는 능력이다.
- 4) 확인하기: 듣기를 잘 하는 학습자는 질문을 잘 하고(Ex.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화자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준다(Ex. 이해가 잘 안가요).
- 5) 반응하기: 학습자는 자신이 듣는 것에 반응한다.
- 6) 평가하기: 학습자는 자신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스스로 평가한다.

Rost가 제시한 여섯 가지 원리는 학생들이 듣기 시 필요한 효과적인 듣기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듣기를 잘 하는 사람은 자신이 들을 것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데 이는 듣기 전 활동(pre-listening activity) 과 같은 원리이다. 듣기 전 활동이란 곧바로 학습자에게 듣기자료를 들려주기 전에 배경지식의 여부에 따라 듣기가 더 잘되므로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듣기 전 단계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다. 듣고 이해하는 것은 학습자가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 개념, 배경지식을 이용해서 화자의 의도를 추론하고 재구성하는 사고의 과정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청각적으로 전달되는 언어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자신의 선형지식을 활용하여 함축된 부분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

다(Hedge, 2000). 이 단계에서는 본문과 관련된 그림을 보거나, 본문 주제에 대하여 브레인스토밍을 하거나 중요 어휘를 제공해 주어 듣기 이해를 높여 줄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는 듣기 이해능력을 갖출 수 있다.

둘째, 학습자가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를 잘 이해하여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문장 간의 연결성이 없어 눈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관성(coherence)을 파악할 줄 알고, 발화를 연결해주는 결합력(cohesion)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문법적 결합력(grammatical cohesion)으로 지시 대명사의 쓰임을 가르친다거나, 어휘적 결합력(lexical cohesion)의 예로서 반복(repetition), 동의어(synonyms)를 이용하여 글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듣기를 잘 하는 학습자는 자신이 이해한 것과 이해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에 화자에게 질문(What does that mean? You mean...?)을 하거나 피드백(I don't understand yet.)을 하고 반응을 한다. 이러한 반응은 말하기 활동으로 연장하여 듣기 수업에 대한 마무리를 할 때 좋다. 말하기와 듣기의 통합수업(integration) 모형의 교실 기법을 수행할 수 있고, 학생들이 겪는 언어적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듣기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 한다거나, 줄거리 요약, 주제에 관하여 토론하여 통합수업이 전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듣기를 잘 하는 학습자는 자신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평가할 줄 안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중간 언어(interlanguage)의 단계들을 거쳐 점차 목표언어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오류를 하나의 학습과정으로 보고 더 나은 중간언어 단계로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따라서, 보다 나은 중간언어 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사는 학습자의 부정

확한 언어 형태에 대해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오류를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Littlewood, 1988).

Mendelsohn(1995, 1998) 또한 제2언어 학습자의 듣기 전략에 있어서 교사가 가르쳐야 할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1) 학습자에게 듣기 전략의 힘과 가치에 대한 중요성 일깨우기.
- 2)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듣기 전 활동 사용하기.
- 3) 학습자가 무엇을 들을 것이고, 왜 듣는지 이유 확실히 알게 하기.
- 4) 특정 전략(ex. 이름이나 자료 듣기)을 사용함에 있어서 많은 연습을 제공하는 듣기 활동 제공하기.
- 5) 문맥과 의미에 중점을 둔 실질적인 자료 사용하는 전략 연습하기.
- 6) 이해한 내용 이용하기: 강의에서 줄거리를 요약하기 위하여 필기하고,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양식 채우기.
- 7)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평가하게 하여 얼마나 정확하게 듣기를 이해하고 완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위에서 서술한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듣기 전략을 요약하면, 듣기 전략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듣기 전 활동을 사용하고, 듣기 전에 무엇을 들을 것인지 명확하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듣기 활동이 제공되어야 하고, 문맥과 의미에 중점을 둔 진정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학습자들이 이해했는지 체크하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가르쳐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듣기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들은 상향식, 하향식, 상호작용적 이해과정을 돕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공통점을 갖는다. 이 전략들을 바탕으로 교실에서 듣기 활동 지도 시 학생들의 수준과 발달 단계에 따라 다음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1) 사실(facts) 확인
- 2) 글의 배열순서(sequences) 및 시간 흐름의 이해
- 3) 중심 개념의 파악
- 4) 글의 흐름과 방향 이해
- 5) 대강의 줄거리 요약
- 6) 원인과 결과의 이해
- 7) 비교, 대조되는 사항 식별
- 8) 등장인물의 성격 이해

다만 처음에는 기초적인 이해 능력 배양(음운론적 체계)에 역점을 두어 지도하고, 학년과 단계가 올라가면서 들리거나 글로 된 담화나 문장에서 사실 그대로의 뜻을 이해하는 수준과, 표출된 내용보다 더 깊은 뜻을 파악하고 그 숨은 뜻을 찾아내는 수준을 좀 더 심화하면서 가치관을 생각하게 하는 것까지 지도해야 할 것이다.

상향식 이해 과정은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들을 것인지를 먼저 제시해 주어 학습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활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단계적으로 진정성있는 자료(authentic material)를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제공하고, 들은 후 말하기 연습 활동을 한다거나, 대본(script)를 주고 축약 형태를 찾아보게 한 후 새로운 대본을 이용하여 훈련하고 테이프와 똑같이 따라 읽게 하는 활동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향식 이해과정은 듣고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청자의 선형지식,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기대와 일치시키며, 자신의 지식을 사용하여 추측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내적 자료(internal source)를 이용하여 추론하는 과정인 배경지식(background knowledge)을 바탕으로 듣기를 하는 하향식 처리 과정이자 추론적 이해 문항이다. 추론적 이해 문항을 돕는 방법으

로 듣기 전에 배경 정보를 먼저 학습 (Look for background information)하여 추론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상호작용적 이해 과정을 높이는 대표적인 활동으로 문법 받아쓰기 (dictogloss)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법 받아쓰기에 대한 정의는 Wajnryb(1990)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는데, 받아쓰기에서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받아쓰기(dictation)와 주석(gloss)을 합성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용어로 진정성 있는 교수학습 활동의 한 형태로서 볼 수 있다. 교사는 지문을 정상속도로 읽어주고 학습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받아쓰기를 한다. 그 후 소집단을 형성하여 그들이 쓴 내용을 서로 협동하여 재구성하고 토론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들은 기본적으로 문장 안에 있는 각각의 요소에 대하여 신경을 쓸 수 있는 동시에, 토의를 통해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해 질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배경지식을 통하여 듣기 활동을 진행해 나감에 듣기활동을 통하여 말하기, 쓰기, 읽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 수업에서 문법 받아쓰기 기법을 이용한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짧은 글을 정상적인 대화속도로 읽어주고, 주요 어구를 받아 적게 한다. 그리고 소집단 안에서 적은 내용을 모아 의미가 통하도록 원문을 재구성하면서 문법적인 부분도 확인을 한다. 마지막으로 학습 전체 활동으로 각 집단이 만든 글을 발표하고 이를 교사가 분석하며 틀린 부분을 정정한다(Wajuryb, 1990).

받아쓰기는 학습자가 들은 음성적 입력(phonetic input)을 문자를 이용하여 글로 그대로 옮겨 쓰는 문자의 출력(written output)활동이라 할 수 있다(최선순, 2002에서 재인용). 반면에 문법 받아쓰기는 음성적 자료를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재구성하여 문자로 출력하는 점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즉, 학습자가 자신의 문법적, 언어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지문을 재구성하기 때문에, 받아쓰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중간어(interlanguage)를 목표언어 체계로 근접시킬 수 있게 된다.

듣기학습 시 이야기, 일화, 유머, 담화 등 다양한 유형의 듣기 자료를 주는 것이 좋은데 현재 교실현장에서는 시간, 환경, 경제적 요인 등으로 대부분 문제풀이 식의 영어대화듣기, 팝송 듣기 등 기존의 몇 가지 한정된 방법만 계속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학생들의 동기 부여와 참여도를 높이고자 무엇보다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교사의 노고와 시간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교사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또한 분리된 교수 방법이 아닌 통합적인 듣기지도로 바탕으로 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어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인위적이며 이 방법이 의사소통 즉, 말하기, 읽기, 쓰기에 전이되기 때문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기간

본 논문은 듣기 평가 문항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2007학년도 제 1회 영어듣기능력평가(부록 참조)를 가지고 중학교 1학년 4개 학급(총 1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에 소재하는 D와 H 학교를 제외하여 D중학교에서 세 학급, H학교에서 한 학급을 대상으로 듣기평가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듣기 평가와 설문 조사 실시한 기간은 2007년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약 25분씩 조례시간(8:30~8:55)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듣기 평가는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 음량 조절이 원활하게 되었으며, 소음의 문제없이 실제로 듣기 평가를 실시하는 것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듣기 평가 시험을 실시한 후 시간이 남았을 경우는 설문 조사를 바로 실시하였으며, 시간이 부족할 경우는 다음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문항 분석 방법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문항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중학교 듣기 평가 문항이 듣기 과정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둘째, 듣기 과정별로 문항 구분 시 각 문항들의 분포와 난이도는 어떠한가?

셋째, 문항 분석 판단 기준표에 준하여 각 문항별 정답율(IF), 변별도(DI), 선택지 반응률(DE)은 어떠한가?

넷째, 듣기 평가 문항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하는 문항은 어떠한 이해문항이며, 수준별로 어려움을 느끼는 이해문항을 분석해 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일까?

다섯째, 본 연구의 평가 도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평소 듣기 평가 향상을 위하여 어떠한 학습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위의 다섯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이해문항 분류 시 Morley(1991)의 이론을 중심으로 상향식, 하향식 듣기 과정을 분류하고, Peterson(1991)이론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적 듣기 과정을 분류하여 듣기 평가 문항 유형을 분류한다. 이해문항별 분류 후 문항의 난이도(ID), 변별도(DI), 선택지 반응률(DE)을 통하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항의 유형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도록 한다. 분석 도구는 15개 시·도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2007년도 중학교 1학년 1회 영어 듣기 평가 시험으로 한다.

3. 듣기 평가 문항 유형 분류표

듣기 평가 문항 유형 분류 시 적용 가능한 것으로 상향식 듣기 이론과 하향식 듣기 이론은 Morley의 이론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적 듣기과정은 Peterson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들을 바탕으로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형태의 평가 문항 분류표를 재구성하여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8〉 평가 문항 유형별 듣기 활동의 분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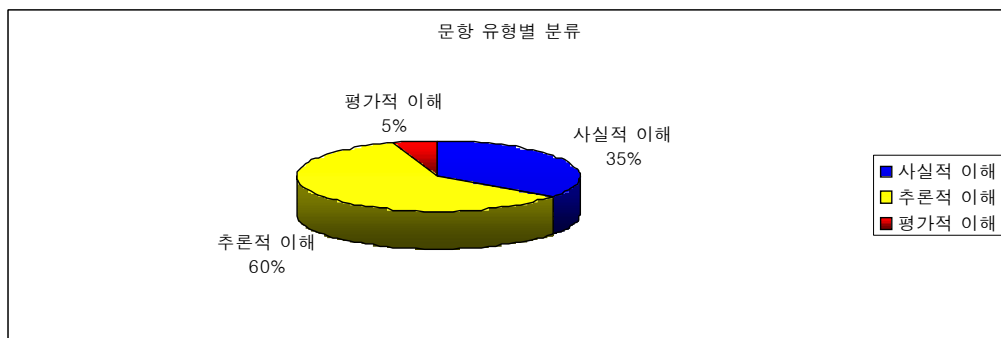
과정	문항 분류	결과의 종류	듣기 활동의 세부적 분류
상 향 식	사실적 이해	듣고 행동으 로 옮기기	듣고 일치하는 그림, 인물 고르기 지도 보면서 길, 장소 찾기
		듣고 정보 전이 시키기	필요 정보 고르기(시간, 가격, 날씨, 교통수단) 특정 정보 파악하기 / 일치하지 않는 정보 찾기
하 향 식	추론적 이해	듣고 문제 해결하기	도표, 도식 보며 내용 파악하고 완성하기 대화 장소 파악하기 대화의 내용 파악하고 고르기 화자의 직업 파악하기 대화의 목적(전화 내용), 주제 파악하기 화자 간의 관계 파악하기 적절한 응답 고르기 / 어색한 대화 내용 고르기
상호 작용	평가적 이해		화자의 심정 파악하기 내용을 듣고 결론 제시하기

IV. 연구결과

1. 듣기 평가 문항 유형별 구성율

2007년 4월에 실시된 중학교 1학년 듣기 문항을 위의 <표 8>에 의거하여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표 9> 이해과정별 듣기 평가 문항 구성율



위의 원형 차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듣기 평가 문항은 상향식 과정(사실적 이해 문항)이 7문항으로 전체 문항의 35%를 차지하고 있고, 하향식 과정(추론적 이해 문항)은 12문항으로 60%, 상호작용적 과정(평가적 이해 문항)은 1문항으로 5%으로 문항의 반 이상이 하향식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유형별 분류에 따른 학생들의 정답율, 변별도, 선택지 반응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 영어 듣기 평가 문항 분석결과

2007년도 4월에 실시된 듣기 평가 시험의 난이도, 변별도, 점수 등의 평균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10〉 2007년도 1회 듣기 평가 문항 분석 결과 (110명 기준)

총 문항 수	20문항	평균난이도	0.74
평균점수(100점 만점)	73.18점	평균변별도	0.18
최저/최저 점수	20점 (오답개수 16개)/100점 (오답개수 0개)		
상 위 집 단 (30%)	피험자 수 : 33명 최고/최저 점수 : 100 / 90점		
하 위 집 단 (24%)	피험자 수 : 26명 최고/최저 점수 : 55 / 20 점		

총 20문항의 4지 선다형으로 구성된 중학교 1학년 2007년도 1회분 듣기 평가의 평균 점수는 73.18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평균 난이도는 0.74로 전반적으로 적절한 문항에 속하는 수치를 보였다. 평균 변별도는 0.18로 전반적으로 변별력이 매우 낮은 별로 좋지 않은 문항에 속하는 수치를 보였다. 어려운 문항이 어느 정도 출제되어야 변별력이 있고 이에 따라 시험자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좋은 문항에 속하나 이번 시험은 어려운 문항은 없고 적절한 문항이 총 9문항, 쉬운 문항이 총 11문항으로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높은 점수는 100점이고, 가장 낮은 점수는 20점까지 점수의 폭이 넓은 편이었다.

변별도 측정 시 사용될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배분은 Kelly의 이론에 따라서 나온 수치이다. 이때 상, 하 집단을 각각 27%로 배분하고자 하였으나 동점자로 인하여 상위집단 30%(오답개수 0~2, 33명) 하위집단을 24%(오답개수 9~16, 26명) 비율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다음은 각각의 문항 난이도, 변별도, 선택지 반응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 문항 난이도(IF: Item Facility)

위에서 살펴본 문항 분석 평가 기준표에 의하여 듣기 평가 문항의 난이도(정답율)를 문항 순위별로 나타내면 <표 11>과 같다.

<표 11> 중학생 문항별 오답율 순위

순위	문항번호	정답자수(명)	오답율(%)	난이도(%)	무응답(명)	난이도
1	8	45	58.72	41.28	1	적절
2	14	53	51.82	48.18	0	적절
3	20	55	49.54	50.46	1	적절
4	12	58	46.30	53.70	2	적절
5	16	67	39.09	60.91	0	적절
6	2	75	31.82	68.18	0	적절
7	4	76	30.28	69.72	1	적절
8	5	80	26.61	73.39	1	적절
9	11	80	25.93	74.07	2	적절
10	19	82	24.77	75.23	1	쉬움
11	6	84	23.64	76.36	0	쉬움
12	3	84	22.94	77.06	1	쉬움
13	15	87	20.91	79.09	0	쉬움
14	7	91	15.74	84.26	2	쉬움
15	10	93	15.45	84.55	0	쉬움
16	1	95	13.64	86.36	0	쉬움
17	13	97	11.82	88.18	0	쉬움
18	9	100	9.09	90.91	0	쉬움
19	18	105	4.55	95.45	0	쉬움
20	17	106	3.64	96.36	0	쉬움

위의 <표 11>의 문항 난이도(정답율)는 문항의 답을 맞힌 피험자 수를 총 피험자의 수로 나누어 나온 수치로 오답율이 높은 순으로 재배열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난이도 판단 기준표에 의하면 난이도가 .25이하일 경우 어려운 문항, .25~.75 일 경우 적절한 문항, .75이상일 경우 쉬운 문항에 속한다고 본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문항의 난이도를 살펴보면, 가장 오답율이 높은 문

항인 8번이 난이도가 41.28%(45명)로 적절한 문항에 속하는 문항으로 나타났다. 총 20문항중 9문항이 적절한 문항에 속하고 11문항이 쉬운 문항의 난이도에 속하는 수치를 보였다. 어려운 문항에 속하는 문항은 없었으며 주로 쉬운 문항에 속하는 문항이 50%를 차지하여 학생들에게 있어 매우 쉬운 시험으로 여겨졌으리라 보인다. 가장 정답율이 높은 문항은 17번으로 110명의 학생들 중 106명의 학생들이 정답을 맞추어 96.36%의 매우 쉬운 난이도를 보였다.

2.2 문항 변별도(DI: Discrimination Index)

위에서 살펴본 피험자의 수에 따른 배분률에 의한 문항별 변별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총 실험집단 110명을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등분 시 <표 12>의 ①번은 총 실험집단을 이등분하여 배분한 것인데, 이때 동점자로 인하여 상위집단을 55%(오답개수 0~5, 60명), 하위집단을 45%(오답개수 6~16: 무응답 포함, 50명)으로 나누어 계산된 변별 수치이다.

<표 12> 문항별 변별도 지수

문항	상위	① H55% / L45%		② H30% / L33%		③ H30% / L24%		변별도 평가
	하위	정답(명)	변별도	정답(명)	변별도	정답(명)	변별도	
1	H	57	0.36	32	0.07	32	0.14	매우 낮음
	L	37		24		17		
2	H	51	0.53	33	0.18	33	0.21	낮은 문항
	L	22		13		10		
3	H	59	0.64	33	0.20	33	0.25	낮은 문항
	L	24		11		6		
4	H	56	0.67	32	0.20	32	0.24	낮은 문항
	L	19		10		6		
5	H	48	0.29	30	0.05	30	0.12	매우 낮음
	L	32		24		17		
6	H	58	0.58	33	0.15	33	0.20	낮은 문항
	L	26		17		11		

7	H	56	0.36	33	0.08	33	0.16	매우 낮음
	L	36		24		15		
8	H	34	0.42	23	0.15	23	0.18	매우 낮음
	L	11		6		3		
9	H	59	0.33	33	0.05	33	0.13	매우 낮음
	L	41		27		19		
10	H	58	0.42	32	0.10	32	0.16	매우 낮음
	L	35		21		14		
11	H	56	0.58	33	0.18	33	0.24	낮은 문항
	L	24		13		7		
12	H	43	0.53	24	0.13	24	0.16	낮은 문항
	L	14		10		6		
13	H	56	0.27	33	0.04	33	0.11	낮은 문항
	L	41		29		21		
14	H	41	0.53	28	0.19	28	0.21	낮은 문항
	L	12		7		5		
15	H	57	0.49	33	0.11	33	0.16	매우 낮음
	L	30		21		15		
16	H	51	0.60	31	0.17	31	0.22	낮은 문항
	L	18		12		7		
17	H	60	0.25	33	0.01	33	0.10	매우 낮음
	L	46		32		22		
18	H	60	0.29	33	0.02	33	0.11	매우 낮음
	L	44		31		21		
19	H	58	0.62	33	0.16	33	0.22	낮은 문항
	L	24		15		9		
20	H	46	0.67	31	0.24	31	0.26	낮은 문항
	L	9		5		2		

②번은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을 각각 33%의 비율로 배분한 것인데, 배분 시 동점자로 인하여 상위집단은 30% (오답개수 0~2, 33명), 하위집단은 33%(오답개수 8~16, 36명)으로 나누어 나온 수치이다. ③번은 상, 하 집단을 27%(Kelly)로 배분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동점자로 인하여 각각 30%(오답개수 0~2, 33명), 24%(오답개수 9~16, 26명) 비율로 나타난 수치이다. 상위집단 비율을 더 적게 잡을 경우 변별도 추정이 너무 미세하게 되므로 가장 적절한 수치인 30%로 배분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험자의 수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문항 변별도 지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배분 방법 중 각각의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배분률이 기준 배분율과 가장 근접한 근사치를 보이고, 가장 세밀하고 정교한 배분율을 취하고 있는 ③번의 방법으로 변별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항 변별도는 상위 30% 피험자 집단의 정답 비율과 하위 24% 피험자 집단의 정답비율의 차이로서, 1번 문항의 정답비율 차이에 의한 문항 변별도는 0.14이다. 변별도는 수치가 높을수록 변별력이 있는 문항으로, 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20번이 0.26으로 가장 높은 변별도를 보이고,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17번은 변별력이 매우 낮은 문항으로 최소한 수정되거나 제외되어야 할 문항으로 보인다.

2.3 선택지 반응률(DE: Distractor Efficiency)

선다형의 문항에서 답지 작성은 문항의 질을 좌우한다. 답지들이 그럴듯하고 매력적일 때 문항이 어려워지며 비교, 분석, 종합 등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매력이 전혀 없을 경우 답지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4지 선다형 문항은 3지 선다형 문항으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선다형 문항에서 답지에 대한 분석은 문항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작업이 된다. 이러한 선택지 반응률을 문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 각 문항별 선택지 반응률

문항	난이도	정답율 (%)	변별도	선택지 반응률(%)				무응답
				①	②	③	④	
1	0.86	86.36	0.14	3.64	7.27	2.73	★86.36	0
2	0.68	68.18	0.21	6.36	10.00	15.45	★68.18	0
3	0.77	77.06	0.25	0.92	13.76	★77.06	8.26	1

4	0.70	69.72	0.24	★69.72	4.59	21.10	4.59	1
5	0.73	73.39	0.12	13.76	8.26	4.59	★73.39	1
6	0.76	76.36	0.20	17.27	5.45	★76.36	0.91	0
7	0.84	84.26	0.16	6.48	5.56	3.70	★84.26	2
8	0.41	41.28	0.18	11.93	43.12	★41.28	3.67	1
9	0.91	90.91	0.13	5.45	1.82	★90.91	1.82	0
10	0.85	84.55	0.16	5.45	★84.55	5.45	4.55	0
11	0.74	74.07	0.24	2.78	11.11	★74.07	12.04	2
12	0.54	53.70	0.16	7.41	30.56	8.33	★53.70	2
13	0.88	88.18	0.11	2.73	5.45	★88.18	3.64	0
14	0.48	48.18	0.21	★48.18	47.27	3.64	0.91	0
15	0.79	79.09	0.16	10.00	★79.09	5.45	5.45	0
16	0.61	60.91	0.22	30.91	★60.91	5.45	2.73	0
17	0.96	96.36	0.10	0.91	★96.36	0.91	1.82	0
18	0.95	95.45	0.11	0.00	★95.45	0.91	3.64	0
19	0.75	75.23	0.22	★75.23	12.84	5.50	6.42	1
20	0.50	50.46	0.26	★50.46	11.93	26.61	11.01	1

위의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피험자들이 각각의 답지에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1번 문항의 경우 ①번 답지에 전체 피험자의 3.64%, ②번 답지에 7.27%, ③번 답지에 2.73%, ④번 답지에 86.36%가 응답하였다. 여기서 정답지 ④번에 대한 응답비율은 총 피험자 중 정답을 선택한 비율로서 문항난이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18번의 경우, 정답인 ②번에 96%의 수험생이 답을 하고, 다른 선택지는 거의 선택하지 않았다. 특히 선택지 ①의 경우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택지로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선택지의 선택률이 매우 낮은 것도 역시 정답으로서의 매력에 매우 적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선택지 매력도가 높은 20번의 경우 정답인 선택지 ①의 선택률이 가장 높은 비율(51%)로 나와 있고, 나머지 선택지 ②, ③, ④도 각각 12%, 27%, 11%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거나 몰리지 않고 다른 선택지도 유사한

선택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50%의 적절한 난이도와 .26의 낮은 변별도를 보이고 있으나 총 문항 중 가장 좋은 문항으로 간주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정답율이 51%였으므로 정답이 아닌 나머지 선택지에 각각 16%의 정도의 선택률(49%≒3개 오답지)이 나왔다면 더 이상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유형별 각각의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4. 이해 문항별 분석

좋은 문항은 문항 난이도가 적절하며, 문항 변별도가 높고, 선택지 반응률이 균형 잡혀 있어야 한다. 즉, 정답을 제외한 오답지들의 반응률이 서로 비슷하다면 답지 자체는 매우 매력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대신 문항은 매우 어려워진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문항별 난이도, 변별도, 선택지 반응률을 이해 문항별로 각각의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4.1 사실적 이해 문항

사실적 이해 문항은 상향식 과정으로 듣기가 이루어지는 문항으로 음성, 단어, 구문, 문장을 순서대로 해독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정보의 초점을 음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나 단어에 주목하여 듣기가 이루어지는 문항이다.

(1) 일치하는 그림, 인물 고르기

일치하는 그림 고르기는 그림을 보고 올바르게 설명하는 것을 고르는 문항으로 듣고 행동으로 옮기기를 목표로 한다. 이 문항 유형은 매년 출제되는 유형으로 출제되는 내용면에서도 매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문항 1] 다음 그림을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고르시오.



- ① ② ③ ④

◆ SCRIPT	
① M: He is running.	② M: He is having dinner.
③ M: He is drinking coffee.	④ M: He is talking on the phone.

정답자수 (명)	난이도 (IF)%	변별도 (DI)	선택지 반응률(%)				무응답
			①	②	③	④	
95	86.36	0.14	3.64	7.27	2.73	★86.36	0

이 문항은 그림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고르는 것으로 단순히 dinner, coffee, phone 등의 단어의 의미만을 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사실적 이해에 속하는 문항이다. 문장의 형태는 중1단계에서 배우는 진행형으로 묘사되고 있다. 문항의 정답율은 86.36%로 쉬운 문항으로 여겨진다. 변별도 또한 .14로 변별력이 매우 낮은 좋지 않은 문항으로서 수정될 필요가 있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선택지 반응률을 보면 정답인 ④번 이외에 나머지 선택지들은 거의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번의 선택지가 다른 것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그림 상 학생들이 책상을 식탁으로 잘못 인식하였거나 단어를 잘 이해 못하여 선택했으리라 보인다. 이러한 문항은 들은 것 그대로 주어진 그림을 고르는 상향식 과정으로 듣기가 이루어지며, 듣기의 결과나 목표는 듣고 행동으로 옮기기에 속한다.

[문항 2] 다음을 듣고, 남자가 기르는 애완동물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 SCRIPT

M: I have a pet. It has a small head. It has four legs. It is two years old. It likes water. It can live in the water or on the land. Its back is hard. What animal is my pet?

정답자 수(명)	난이도 (IF) %	변별도 (DI)	선택지 반응률(%)				무응답
			①	②	③	④	
75	68.18	0.21	6.36	10.00	15.45	★68.18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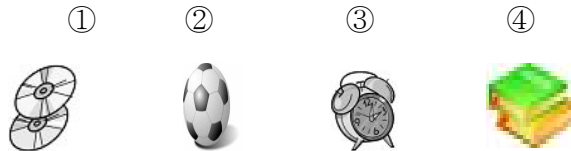
이 문항은 It can live in the water or on the land와 Its back is hard 문장 속의 water, back, hard만의 단어를 통해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상향식 이해과정 문항이다. 또한 can과 can't를 구별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답을 할 수도 있다. 난이도가 68.18로 적절한 문항에 속하며 변별도 또한 .21로 1번 문항보다 약간 변별도가 있는 문항이다. 선택지 반응률도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대체적으로 적절한 선택 반응률을 보인다. 정답율이 68%이므로 정답이 아닌 나머지 3개의 선택지에 골고루 11% 정도의 선택률(32%≒3개 오답지)을 보였다면 더 이상적인 문항이었을 것이다.

(2) 필요 정보 고르기

필요 정보 고르기는 대화 내용을 듣고 사람의 이름, 날짜, 위치 등을 선택적으로 찾아내도록 하는 활동으로 정보를 전이시키거나 선택적으로 듣거나 파악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문항들은 전체의 장(field) 안에 산재해

있는 개별적 항목 및 세부사항에 보다 주목을 하는 장독립성(field independence) 학습자에게 적합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문항 3] 대화를 듣고, 여자가 John의 생일 선물로 살 것을 고르시오.



◆ SCRIPT

W: Hey, Peter. Did you buy a birthday present for John?

M: Yes, I bought a soccer ball. How about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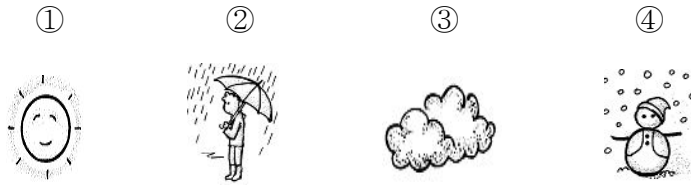
W: I'm going to buy an alarm clock.

M: Good idea! He is always late for school.

정답자 수(명)	난이도 (IF)%	변별도 (DI)	선택지 반응률(%)				무응답
			①	②	③	④	
84	77.06	0.25	0.92	13.76	★77.06	8.26	1

이 문항은 대화를 듣고 여자가 John의 생일 선물로 살 것을 선택적으로 찾는 사실적 이해 문항이다. 산 물건(a soccer ball)과 살 물건(an alarm clock)을 잘 들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항으로 ‘did you,’ ‘bought,’ ‘I’m going to buy’를 인식하지 못하고 산 물건으로 잘 못 들었을 경우 ②번 선택지로 정답을 선택했을 것으로 역시 정답인 ③번 다음으로 선택지 반응률이 높다. 난이도는 77.06%로 쉬운 문항에 속하고, 변별도는 0.25로 지금까지 살펴본 1,2 문항 보다 변별도가 있다. ①번 선택지 응답률이 조금 더 높았다면 문항의 변별도가 훨씬 높아졌을 것이다.

[문항 4] 대화를 듣고, 제주의 오늘 오후 날씨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SCRIPT
 (Telephone rings.)
 M: Hello, is Sujin there?
 W: Yes, it's Sujin.
 M: Hi, Sujin. It's Tom. I'm going to Jeju this afternoon.
 How's the weather there?
 W: It's a little cloudy now, but it'll be sunny this afternoon.

정답자 수(명)	난이도 (IF)%	변별도 (DI)	선택지 반응률(%)				무응답
			①	②	③	④	
76	69.72	0.24	★69.72	4.59	21.10	4.59	1

대화를 듣고 제주의 오후 날씨를 그림 중에서 고르는 사실적 이해 문항이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당시의 제주 날씨(cloudy)와 오후 날씨(sunny)를 It's와 'It'll'를 구별해서 잘 들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항이다. 69.72%의 난이도와 0.24의 낮은 변별도 수치를 보이고 있다.

[문항 6]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고르시오.

- ① \$2 ② \$4 ③ \$6 ④ \$8

◆ SCRIPT
 M: May I help you?
 W: Yes, please. I'm looking for a pencil.
 M: How about this one?
 W: I like it. How much is it?
 M: It's two dollars.
 W: I'll take three pencils.

정답자 수(명)	난이도 (IF)%	변별도 (DI)	선택지 반응률(%)				무응답
			①	②	③	④	
84	76.36	0.20	17.27	5.45	★76.36	0.91	0

이 문항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는 사실적 이해 문항으로 It's two dollars와 I'll take three pencils 문장을 이용하면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항이다. 맨 마지막 문제를 못 들었거나 놓쳤을 경우에 단순히 ①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함정을 내포하고 있는 문항으로 정답 다음으로 선택지 반응률이 높다. 76.36%의 쉬운 난이도를 보이고, 0.20의 낮은 변별도 수치를 보인다. ①번 선택지 수치가 다른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을 뿐 다른 선택지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문항 8] 대화를 듣고, 현재 시각을 고르시오.

- ① 7:10 ② 7:15 ③ 7:50 ④ 8:10

◆ SCRIPT							
W: What time is it?							
M: It's seven fifty.							
W: The concert will start at eight o'clock.							
M: Okay. We have only ten minutes before it starts.							

정답자 수(명)	난이도 (IF)%	변별도 (DI)	선택지 반응률(%)				무응답
			①	②	③	④	
45	41.28	0.18	11.93	43.12	★41.28	3.67	1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현재 시각을 고르는 문항으로 It's seven fifty 한 문장만으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항인 동시에 문장 내에 많은 함정을 내포하고 있어 학생들이 어려워할 여지가 있는 문항이다. Fifty와 fifteen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콘서트 시작 시간, 콘서트 시작 전에 10분 등 다른 일

에 대한 시각을 이야기함으로써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난이도는 41.28로 적절할 문항의 수치의 보이는 반면, 변별도는 0.18로 변별도가 없는 문항으로 보여진다. 우선 변별도 면에서 이 문항은 좋은 문항이 아니다. 정답인 ③번보다 ②번의 선택률이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아 숫자 50과 15의 발음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학생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듣기 평가 총 문항 중 가장 낮은 어려운 난이도 수치를 보인다.

[문항 9]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이용할 교통수단을 고르시오.

- ① 택시 ② 버스 ③ 지하철 ④ 자전거

◆ SCRIPT							
W: Joe, we can't ride bikes. It's raining outside.							
M: Then let's take the subway.							
W: I think I can drive my car.							
M: Driving is a bad idea because it's raining too hard.							
W: Okay. Let's go to the subway station.							
정답자 수(명)	난이도 (IF) %	변별도 (DI)	선택지 반응률 (%)				무응답
			①	②	③	④	
100	90.91	0.13	5.45	1.82	★90.91	1.82	0

대화를 듣고 대화의 주요 내용 즉, 두 사람이 이용할 교통수단을 구체적으로 묻는 형태의 문항으로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볼 때 타당도가 매우 높은 문항이다. 사용 빈도와 유용성이 높은 의사소통 기능, 어휘, 구문 등이 사용되었고 언어생활의 실제적인 모습을 잘 구현한 대화문이다. Driving is a bad idea because it's raining too hard와 Let's go to the subway station의 관계만을 파악하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이다. 또한 단순히 subway만으로도 답을 구할 수 있는 문항이다. 문항의 정답율은 90.91%로 쉬운 문항에 속하고 이에 따라 변별도도 0.13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인다.

2.4.2 추론적 이해 문항

추론적 이해 문항은 하향식 기술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려는 활동으로 담화 내용을 전체적(global)이고 광범위(extensive)하게 이해하려는 활동이다.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경지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입력을 해석하는 과정으로, 예를 들면 담화의 주제를 파악하거나 반드시 단어 전부를 이해하지 않고도 요점과 중요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활동이다.

(1) 어색한 내용 고르기

어색한 내용 고르기는 두 사람간의 대화를 전반적으로 이해해 대화가 올바르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단어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대화상의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즉 텍스트상에 나타나는 일관성(coherence)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있는지의 이해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이다.

[문항 5] 다음을 듣고, 두 사람의 대화가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 ① ② ③ ④

◆ SCRIPT	
① M: How are you doing? W: Fine, thanks.	③ M: Where are you from? W: I'm from Los Angeles.
② M: What day is it today? W: It's Monday.	④ M: Who's calling please? W: It's mine.

정답자 수(명)	난이도 (IF) %	변별도 (DI)	선택지 반응률(%)				무응답
			①	②	③	④	
80	73.39	0.12	13.76	8.26	4.59	★73.39	1

이 문항은 두 사람간의 대화가 부자연스러운 내용을 찾는 것으로 생활 영어 측면에서 전형적으로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항이다. 사용 빈도와 유용성이 높은 의사소통 기능, 어휘, 구문 등이 사용되었고 언어생활의 실제적인 모습을 잘 구현한 대화문으로 볼 수 있다. 난이도는 73.39%의 적절한 문항에 속한 반면, 변별도는 .12의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변별도의 수치가 낮은 만큼 많은 학생들이 정답을 골랐다는 것을 의미하고 선택지①번을 정답으로 선택한 것은 질문 자체를 잘못 이해하여 어색한 내용이 아닌 올바른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②번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는 day와 date간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헷갈렸을 경우 오답으로 선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문항은 생활영어가 강한 학생에게 유리한 추론적 이해 문항이자 하향식 이해과정에 속하는 문항이다.

(2) 대화의 내용 파악하고 고르기

대화의 내용 파악하고 고르기 문항은 듣기 평가 문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학생들의 듣기 능력을 평가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학생들의 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쉬운 문항이라고 볼 수 없다.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필요로 하며 문장 전체의 단어를 하나하나 다 듣는 능력보다는 대화나 독백을 통하여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주로 상위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이 세 가지 이해과정 중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라 볼 수 있다.

[문항 10] 다음을 듣고, 나와 남동생을 비교한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 ① 키 ② 취미 ③ 머리 길이 ④ 장래희망

◆ SCRIPT
 M: My brother and I are different. I have long hair and he has short hair. I'm tall and thin. He's short and fat. I want to be a doctor. He wants to be an actor.

정답자 수(명)	난이도 (IF)%	변별도 (DI)	선택지 반응률(%)				무응답
			①	②	③	④	
93	84.55	0.16	5.45	★84.55	5.45	4.55	0

이 문항은 선택지 중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고르는 것으로 내용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 자신과 남동생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hair, tall, doctor, actor라는 단어를 통해 정답을 쉽게 유추 가능한 문항으로 보인다. 84.55%의 매우 쉬운 난이도임에 따라 변별도가 .16으로 학생들의 실력을 판가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쉽게 문항이 출제되어 좋은 문항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선택지 반응률은 정답을 제외하고 각각 5%씩의 선택률을 나타냈다.

[문항 12]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고르시오.

- ① 전화번호 안내 ② 미아보호 방송
 ③ 애완동물 리본 판매 ④ 잃어버린 동물 찾기

◆ SCRIPT
 [Bell rings.]
 W: Attention, please! We are looking for a dog named Coco. Coco is white. She has big ears, a small nose, and a small mouth. She is wearing a pink ribbon. If you find her, please call 322-8765.

정답자 수(명)	난이도 (IF)%	변별도 (DI)	선택지 반응률(%)				무응답
			①	②	③	④	
58	53.70	0.16	7.41	30.56	8.33	★53.70	2

위의 문항과 같이 내용 파악을 통해 답을 고르는 추론적 이해 문항이다. 백화점 같은 공공장소에서 방송을 통해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유형으로 잃어버린 동물을 찾고 있다는 방송을 하고 있다. 잃어버린 동물을 묘사하는 방송을 통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단어를 골라 선택지 문항을 작성하였다. We are looking for a dog이란 문장만으로 답을 고를 수 있으나 잃어버린 동물에 대해 묘사하는 문장 중 pink ribbon, 전화번호 등의 단어를 통해 함정이 여러 곳에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dog란 단어를 듣지 못하고 무엇을 찾고 있다는 것만을 들었을 경우 추론으로 인하여 ②번으로 잘못 고를 수 있는 함정이 숨어있다. 53.70%의 적절한 난이도를 보이나 .16의 매우 낮은 변별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 학생들 중 46.30%가 정답을 고르지 못하였으나 변별도가 낮은 이유는 상위집단 33명 중 26명이 정답을 맞추어 상위집단간의 변별력이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낮은 변별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함정들 중에서 가장 정답과 비교하여 그럴듯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②번에서 정답 다음으로 선택률이 높게 나타났다.

[문항 14]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설명인지 고르시오.

- ① 클럽 소개 ② 체스 대회 ③ 학교 자랑 ④ 학습 계획

◆ SCRIPT
 M: Do you like chess? A new chess club has opened in our school. Anyone can come and enjoy chess. We can teach you how to play it. Everyone is welcome.

정답자 수(명)	난이도 (IF)%	변별도 (DI)	선택지 반응률(%)				무응답
			①	②	③	④	
53	48.18	0.21	★48.18	47.27	3.64	0.91	0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판단하고 답을 고르는 추론적

이해 문항이다. A new chess club has opened in our school의 문장을 통해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있으나 반면 chess에만 너무 몰입하여 이와 관련된 선택지를 고를 함정이 숨어있다. 단순히 chess란 단어만을 이용해 다음 내용을 듣지 않고 바로 답을 골랐거나, club이란 단어를 못 들었을 경우 급하게 답을 선택하여 오답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문항이다. 반 이상의 학생이 오답을 골랐으나 변별도는 .21로 낮은 변별도를 보였다. 정답인 ①번과 거의 유사하게 ②번의 선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성급하게 답을 골랐거나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항 18] 다음 대화에 이어서 두 사람이 하게 될 일을 고르시오.

- ① 중국음식점에 간다. ② 피자를 먹으러 간다.
 ③ 시장에 장을 보러 간다. ④ 부엌에서 음식을 만든다.

◆ SCRIPT

M: Is there anything to eat in the kitchen?
 W: Not really. Why? Are you hungry?
 M: Yes, I am. I didn't have lunch.
 W: Hmm.... Then let's go out to eat. Do you want to go to a Chinese restaurant?
 M: No. I want some Italian food. How about some pizza?
 W: That sounds good.
 M: Great. Let's go.

정답자 수(명)	난이도 (IF)%	변별도 (DI)	선택지 반응률(%)				무응답
			①	②	③	④	
105	95.45	0.11	0.00	★95.45	0.91	3.64	0

두 사람간의 대화를 통해 나중에 할 일이 무엇인지 고르는 것으로 How about some pizza를 통해 답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에 두 사람이 무엇을

먹을지 고르는 과정에서 여러 장소가 언급되어 학생들로 하여금 혼란이 야기될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러므로 내용의 전반적인 이해와 파악이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다. 여러 함정이 많이 숨어있는 반면 95.45%의 정답율을 보이고 .11의 매우 낮은 변별도를 나타냈다. 선택지 반응률을 살펴보면, 선택지 ①번의 선택률이 0%로 이를 답한 학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력도가 0%인 선택지는 수정되거나 바뀔 필요가 있다.

(3) 도표 보며 내용 파악하기

도표 보며 내용 파악하기 유형은 도표의 내용을 듣기와 비교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것으로 도표를 볼 줄 하는 능력 또한 필요로 한다. 도표를 빠르게 보면서 듣기 내용과 비교해야 하므로 배경지식 능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접근할 줄 알아야 한다. 듣기 평가 문항 중 1문항 이상은 도표를 이용한 문항이 출제되므로 평상시에 여러 종류의 도표를 접해 빠르게 읽는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시험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항 11] 다음을 듣고, 두 사람의 일과표를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To Do” List	Tommy	Jackie
gets up	7:00	6:30
eats breakfast	7:30	7:10
goes to school	by bike	by subway
does homework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 ① ② ③ ④

◆ SCRIPT

- ① M: Tommy gets up at seven o'clock.
 ② M: Jackie eats breakfast at seven ten.
 ③ M: Tommy goes to school by bus.
 ④ M: Jackie does homework in the evening.

정답자 수(명)	난이도 (IF) %	변별도 (DI)	선택지 반응률 (%)				무응답
			①	②	③	④	
80	74.07	0.24	2.78	11.11	★74.07	12.04	2

이 문항은 도표를 보면서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는 추론적 이해에 속하는 문항이다. 정답인 선택지 ③번에서 도표 상에 찍여진 bike와 bus간의 발음을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항이다. 그리고 단순히 두 단어의 차이로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Tommy의 일과표인지 Jackie의 일과표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남자의 말과 도표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빠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74.07%의 적절한 난이도와 .24의 낮은 변별도를 보인다. 전체 학생의 74%가 정답을 골랐으며 ①의 선택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택지는 골고루 학생들이 선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대화 장소 파악하기

대화의 장소 파악하기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이해하고 추측하여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찾아내는 문항으로 듣기 평가 문항 출제 시 자주 나오는 유형이다. 대화 장소로는 공항, 레스토랑, 옷 가게, 음반가게 등 실제 생활과 연관 지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 좋은 유형의 출제 형태라 볼 수 있다.

[문항 13] 대화를 듣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고르시오.

- ①방송국 ② 옷가게 ③ 음반가게 ④ 장난감가게

◆ SCRIPT

W: May I help you?

M: Yes, I'm looking for a Super Junior CD.

W: Oh, sorry. They're all sold out.

M: Oh, no. I promised my sister I'd buy one for her. What should I do?

정답자 수(명)	난이도 (IF) %	변별도 (DI)	선택지 반응률(%)				무응답
			①	②	③	④	
97	88.18	0.11	2.73	5.45	★88.18	3.64	0

이 문항은 대화의 내용을 통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파악하는 추론적 이해 문항으로 듣기 평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다. 선물할 물건을 물어보는 상황으로 CD라는 단어만으로도 정답의 힌트를 충분히 찾을 수 있게 출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난이도가 88.18%로 많은 학생들이 정답을 쉽게 골랐음을 알 수 있다. 선택지 반응률은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 선택지들이 골고루 선택되어 있으나 정답율이 너무 높아 변별도가 떨어지므로 좋은 문항으로 보기 어렵다.

(5) 두 사람간의 관계 파악하기

두 사람간의 관계 파악하기 유형은 대화의 문장에 겹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문장과 문장 간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출제 빈도수가 높은 편이다. 즉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서 문장과 문장 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성을 파악하여 문항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므로 수험자의 배경지식이나 기존지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문항 15]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① 점원 - 손님 ② 교사 - 학생 ③ 승무원 - 승객 ④ 은행원 - 고객

◆ SCRIPT

M: Mina, I'm so proud of you. You did a really good job on the English exam. Your grade was the best in our class.

W: Thank you. I'm also very happy now.

M: I hope you will always do your best.

W: Okay. It's hard, but I will try, Mr. Jackson.

정답자 수(명)	난이도 (IF) %	변별도 (DI)	선택지 반응률 (%)				무응답
			①	②	③	④	
87	79.09	0.16	10.00	★79.09	5.45	5.45	0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누구와의 대화인지를 고르는 문항이다. Your grade was the best in our class와 I'm also very happy now의 문장 간의 관계를 통해서 쉽게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임을 유추할 수 있다. 물론 내용상 친구와의 대화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등 또 다른 답으로 볼 수 있는 유형은 선택지에 없으므로 ②번이 가장 적절한 답이 될 수 있다. 난이도는 79%로 매우 쉬운 문항임과 동시에 .16의 매우 낮은 변별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선택률은 대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6) 직업 고르기

직업 고르기 문항은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직업을 고르거나 희망하는 직업을 고르는 유형으로 문장 내에 나타나기도 하고 직업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문항 16] 대화를 듣고, 여자가 현재 희망 하는 직업을 고르시오.

- ① 교사 ② 의사 ③ 과학자 ④ 작곡가

◆ SCRIPT

M: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W: When I was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I wanted to be a teacher.

M: And now?

W: Well now I really love animals, so I want to help them when they're sick.

M: Great. I hope your dream will come true.

정답자수 (명)	난이도 (IF)%	변별도 (DI)	선택지 반응률(%)				무응답
			①	②	③	④	
67	60.91	0.22	30.91	★60.91	5.45	2.73	0

여자가 희망하는 직업을 고르는 문항으로 사용 빈도와 유성이 높은 의사소통 기능, 어휘, 구문 등이 사용되었고 현재 중학생인 수험생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잘 구현한 대화문이다. 과거의 희망 직업이 아닌 현재의 희망 직업을 묻는 문항으로 I really love animals, so I want to help them when they're sick의 문장을 통해서 답을 고를 수 있다. 과거의 희망 직업인 teacher가 대화의 초반에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답으로 고를 수 있는 함정이 숨어 있다. 따라서 교사를 답으로 생각하고 ①번을 고른 학생이 30.91%로 정답 다음으로 높은 선택률을 보였다. 나머지는 글의 내용과 너무 동떨어진 직업을 선택지로 선정함으로써 문항 자체의 변별도와 난이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60.91%의 적절한 난이도와 .22의 매우 낮은 변별도를 보였다.

(7) 전화 건 목적 파악하기

전화 건 목적 파악하기 유형은 전화상의 두 사람간의 내용이나, 전화응답기에 남긴 내용을 듣고 전화를 건 이유나 목적을 파악하는 유형으로 실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바탕으로 문항을 출제한다. 주로 의사와의 약속 시간 변경이나 취소, 파티 초대, 친구와의 약속 시간이나 장소 변경, 주문 확인 등을 이용하여 전화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유형이다.

[문항 17] 다음을 듣고, Mike가 전화를 건 목적을 고르시오.

- ① 약속 취소 ② 파티 초대 ③ 친구 소개 ④ 주문 확인

◆ SCRIPT
 [Telephone rings.]
 W: Hi, this is Kate. I'm not in. Please leave a message.
 [Answering machine beeps.]
 M: Hey, Kate. This is Mike. Tomorrow is Jane's birthday. So we will have a birthday party for her. If you want to join us, come to Jane's house at seven o'clock. It's a surprise party, so don't tell her. Bye.

정답자 수(명)	난이도 (IF) %	변별도 (DI)	선택지 반응률(%)				무응답
			①	②	③	④	
106	96.36	0.10	0.91	★96.36	0.91	1.82	0

이 문항은 전화 응답기에 남겨진 남자의 말을 듣고 전화 건 목적을 파악하는 추론적 이해 문항이다. 실제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였다는 점에서 타당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Tomorrow is Jane's birthday 문장과 if you want to join us란 구문을 가지고 문제의 답을 고를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party란 단어만으로도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항으로 보여진다. 학생들 중 96.36%의 매우 높은 정답율을 보이고 매우 낮은 변별도를 보인다.

(8) 적절한 응답 고르기

적절한 응답 고르기 유형은 먼저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들은 후 마지막 말에 이어질 알맞은 응답을 추측하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내용 파악과 의사소통 시 사용되는 생활표현 능력도 필요하다.

[19~20]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문항 19] ① Thanks a lot. ② See you again.
 ③ How are you? ④ Nice to meet you.

◆ SCRIPT
 M: Hi, Jenny. What are you doing?
 W: Hi, Bill. I'm moving this table, but it's so heavy. Can you help me?
 M: No problem. I'll help you.
 W: _____

정답자 수(명)	난이도 (IF) %	변별도 (DI)	선택지 반응률 (%)				무응답
			①	②	③	④	
82	75.23	0.22	★75.23	12.84	5.50	6.42	1

이 문항은 두 사람간의 대화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상대방의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을 고르는 것으로, 여자의 부탁하는 말 “I’ m moving this table, Can you help me?” 에 대한 남자의 “I’ ll help you” 의 문장 간의 관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의사소통 면에서 매우 유용한 문항이다. 75.23%의 쉬운 난이도와 0.22%의 적절한 변별도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정답을 제외한 ②번 선택률이 다른 선택지보다 높은 편이다. ②번을 답으로 선택한 이유는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이 아닌, 두 사람간의 일이 끝난 후의 인사말로 여기고 정답으로 고른 것으로 보여진다. 생활표현법을 익히지 않거나 상황을 잘못 이해했을 경우에는 정답을 고르기가 어려운 문항이다.

- [문항 20] ① Cheer up! ② Have fun.
 ③ That's great! ④ No, thanks.

◆ SCRIPT

M: Last Friday was terrible.

W: What happened?

M: Some players got sick, so we lost the soccer game.

W: _____

정답자 수(명)	난이도 (IF)%	변별도 (DI)	선택지 반응률(%)				무응답
			①	②	③	④	
55	50.46	0.26	★50.46	11.93	26.61	11.01	1

위의 문항과 유형은 같으나 난이도가 50.46%로 전체 학생들 중 반이 오답을 선택하였다. 남자와 여자간의 대화를 통해서 적절한 응답을 고르는 것으로 문항에는 보이지 않고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를 통하여 올바른 응답을 고르는 추론적 이해 문항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응용하여 문제를 접하는 능력 또한 필요하다. 정답률이 50.46%로 적절한 편에 속하지만 변별도는 .26으로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좋은 문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오답 매력도를 보면, 정답인 선택지 ①의 선택률이 가장 높은 비율(50.46%)로 나와 있고, 나머지 선택지는 ③번이 약간 높고 ②, ④은 약 12%로 거의 비슷한 선택률을 보이고 있다.

2.4.3 평가적 이해 문항

평가적 이해 문항은 상호작용적 듣기과정과 유사한 문항으로 들은 내용에 대해서 수험자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답하기를 요구하는 문항이다. 들은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대화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태도나 대화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결론 내리기 등을 평가, 판단하기를 요구하는 문항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수험자의 평가와 판단은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내용 속에 반드시 어떤 평가나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1) 화자의 심정 파악하기

화자의 심정 파악하기는 평가적 이해 문항의 대표적 예로서 문장 내에 나타나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듣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수험자가 대화의 분위기나 심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문항7] 대화를 듣고, 여자의 심정을 고르시오.

- ① 우울하다 ② 지루하다 ③ 화가 난다 ④ 자랑스럽다

◆ SCRIPT
 M : Wow! Look at that boy! He runs so fast.
 W : That is my son.
 M : Your son is a great runner.
 W : Thank you. He practices everyday.

정답자 수(명)	난이도 (IF) %	변별도 (DI)	선택지 반응률 (%)				무응답
			①	②	③	④	
91	84.26	0.16	6.48	5.56	3.70	★84.26	2

이 문항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여자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것으로 여자의 아들에 대한 남자의 말에 대해 여자의 반응이 정답의 힌트가 될 수 있다. 문장 속에 여자가 어떠한 심정인지 글로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아들에 대한 칭찬으로 여자가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난이도는 쉬운 편에 속하고 변별도도 매우 낮은 문항이다. 정답율이 높은 관계로 다른 문항의 선택률이 매우 낮은 편인데, 선택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답인 ④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택지들은 다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로 대화내용을 못 들었을 경우라도 선택지만으로도 추정해서 정답을 맞출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선택지의 내용만을 바꾸었다면 난이도나 변별도 모두 높은 수치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문항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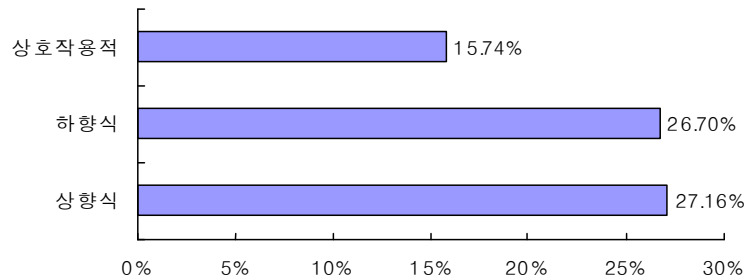
3. 이해 과정별 오답율 및 난이도(정답율) 분석결과

3.1 전체 집단의 이해과정별 오답율 및 정답율

〈표 14〉 전체집단의 오답율과 정답율(%)

구분			전체집단 오답율	전체집단 정답율
상향식	사실적	7문항	27.16	72.84
하향식	추론적	12문항	26.70	73.30
상호작용적	평가적	1문항	15.74	84.26

〈전체집단의 오답율〉



전체집단의 듣기 유형별 구성을 먼저 살펴보면, 상향식, 하향식, 상호작용적 과정에 속하는 문항이 각각 7, 12, 1문항으로 총 문항의 35%가 상향식, 60%가 하향식, 5%가 상호작용적 과정에 속하는 문항으로 하향식 과정에 속하는 문항이 주를 이루었다.

전체집단의 정답율은 각각의 듣기 과정에 속하는 문항을 유형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유형별 문항 수를 합한 개수를 가지고 계산을 한 수치이다(각 문항의 정답을 맞힌 정답율의 합산÷문항 수). 사실적 이해 문항이 72.84%, 추론적 이해문항이 73.30%, 평가적 이해 문항이 84.26%로 세 가지 유형 중 상향식 과정(사실적 이해 문항)에서 가장 오답율이 높고 다음으로 추론적 이

해 문항, 평가적 이해 문항의 순으로 학생들이 오류를 범하고 더 많이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추측하기에는 듣고 일치하는 그림 고르기 등의 들려준 내용을 그대로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를 묻는 상향식 과정에 속하는 유형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높은 정답율을 보이고, 추론을 하거나 화자의 심정을 고르기 등의 하향식이나 상호 작용적 과정에 속하는 유형에서 제일 낮은 정답율을 보일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쉬울 것 같은 상향식 이해문항에서 27.16%의 가장 어려워하는 문항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쉬울 것 같은 상호작용적 이해 문항에서 가장 낮은 15.74%의 오답율을 보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초보자나 숙련이 덜 된 학습자에게는 상향식 이해과정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 Harada(1998)의 의견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물론 학생들의 성향과 수준, 시험 난이도, 유형별 문항 개수 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영어의 기초를 다지는 중학교 1학년의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상향식 듣기 이해과정(사실적 이해)에 속하는 문항에서 가장 오답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들을 수준별(상위집단, 하위집단)로 나누었을 경우 모두 똑같이 상향식 이해 문항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아니면 각각의 집단별로 어려움을 느끼는 이해 문항이 다른지 알아보려고 한다.

3.2 각 집단별 듣기 평가 문항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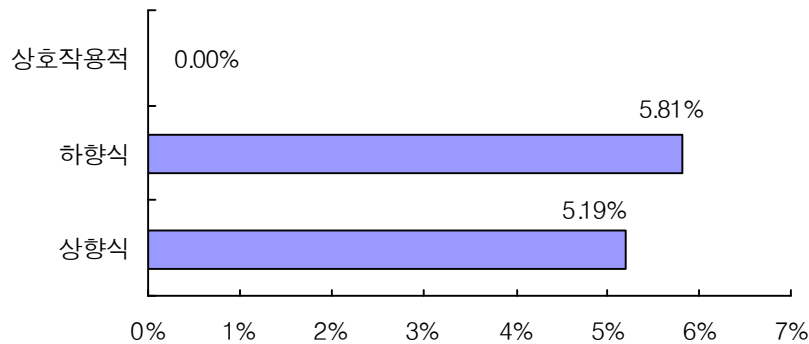
다음으로 전체 학생을 상위, 하위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을 상향식, 하향식, 상호작용적 듣기 과정으로 나누었다. 각 집단별로 학생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각 이해 과정에 대한 난이도(정답율)과 오답율을 통해 각 집단별로 어려워하는 이해 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상위집단의 듣기 이해 과정별 분석

<표 15> 상위집단의 오답율과 정답율 분석

구분	오답율(%)	정답율(%)
상향식(사실적 이해)	5.19	94.81
하향식(추론적 이해)	5.81	94.19
상호작용적(평가적 이해)	0.00	100.00

<상위집단 오답율>



상위집단에 속하는 30%(33명)의 학생들이 정답을 맞힌 비율과 유형을 살펴보면, 상호작용적 과정에 속하는 문항이 100%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하향식 과정이 94.19%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즉 상위집단에 속하는 학생의 경우 가장 오답이 많은 이해과정은 하향식 듣기 과정이고, 가장 오답이 적은 이해과정은 0%로 상호작용적 이해과정임을 알 수 있다. 상위권 집단은 상호작용적 이해과정 처리를 가장 잘 하며, 하향식 이해과정 처리를 상대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다. 상위집단의 학생들인 만큼 각 이해과정별 오답율의 차이가 뚜렷하지는 않으나 하향식 이해과정, 상향식 이해과정, 상호작용적 이해과정 순으로 어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위집단에서는 주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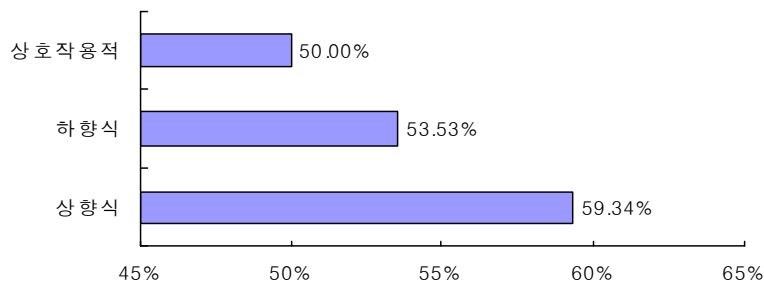
교육에 익숙해진 학생들의 추론 능력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토론이나 발표 위주의 심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추론 능력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듣기 수업 시간에는 하향식 이해과정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2) 하위집단의 듣기 이해 과정별 분석

<표 16> 하위집단의 오답율, 정답율 분석

구분	오답율(%)	정답율(%)
상향식(사실적 이해)	59.34	40.66
하향식(추론적 이해)	53.53	46.47
상호작용적(평가적 이해)	50.00	50.00

<하위집단 오답율>



하위집단에 속하는 24%(26명)의 학생들의 경우는 상호작용적 과정이 50%로 상위집단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상향식 과정에서 40.66%로 가장 낮은 정답율을 보였다. 다시 말하면, 하위집단의 경우 상향식 이해과정의 오답율이 59.34%로 가장 높고, 상호작용적 이해과정이 50%, 하향식 이해과정의 오답율이 53.53%를 차지하였다. 어려워하는 이해과정의 순서가 상향식 이해과정-하향식 이해과정-상호작용적 이해과정 순으로 앞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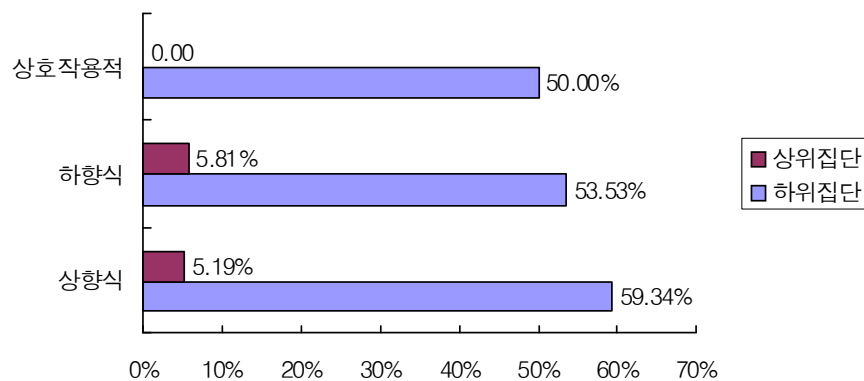
상위그룹과 달리 상향식 이해과정을 하향식 이해과정보다 더 어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두 이해과정에 비해 상향식 이해과정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집단별 듣기 이해 과정 분석

<표 17> 집단별 오답율(%)

구분	상향식	하향식	상호작용적
상위집단	5.19	5.81	0.00
하위집단	59.34	53.53	50.00

<집단별 오답율>



위에서 살펴본 각각의 집단별 이해과정을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나의 그래프 상에서 살펴보면, 상위집단의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해문항은 하향식 이해 문항이고, 하위집단의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해문항은 상향식 이해문항으로 각각의 수준별로 어려워하는 이해문항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집단별 학생들이 자신의 약점을 고려하여 듣기 능력을 향

상시켜야 할 것이다. 상위집단의 학생들에게는 하향식 이해과정을 높일 수 있는 듣기학습이 필요하고, 하위집단의 학생들은 상향식 이해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듣기학습이 필요할 것이다. 상향식 과정이나 하향식 과정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듣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올바르게 듣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앞에서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학습자를 위한 듣기학습 활동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상위권에서 하위권으로 갈수록 상향식 이해과정의 오답율이 점점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원어민이나 비원어민이나 언어적 능력(linguistic ability)이 부족할 시 하향식 이해과정이 하나의 보상적인 전략으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상향식 이해과정은 음운론적 체계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하위 집단에게는 다양한 강세, 억양, 및 운율에 따른 실질적인 담화 상에서의 의미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도와주어 상향식 이해과정에 대한 충분한 연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제2언어를 배우는 초보자에게 더 심각한 듣기의 장애 요소가 되는 동시에, 초보자 중에서도 수준이 낮은 하위집단에서 더 어려움을 느끼는 이해 과정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4. 초보자의 이해과정 방해 요소

지금까지 제 2언어를 배우는 초보자에게 있어서 다른 두 가지 듣기 과정보다 상향식 듣기 과정(사실적 이해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문항에서 보다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나아가 초보자들을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두 집단이 어려움을 느끼는 이해과정이 다르게 나타났다. 초보자들 중 하위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의 경우 상향식 듣기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반면 상위집단의 학생들은 하향식 이해과정에서 더 어려움을 느꼈다.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각각의 문항 분석을 통

하여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이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에 대해 정리, 제언해 보고자 한다.

(1) 분절음(Segment)과 초분절음(Suprasegment)

상향식 이해 문항은 청자의 배경지식을 요하지 않고 오직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자신의 추측이나 기존 지식과는 전혀 무관하게 듣기 능력만을 평가하는 유형이다. 상위집단의 학생들은 학습을 통하여 음운론적 체계를 익히고 단어를 반복 연습하는 등 언어학습을 꾸준히 하여 많은 어휘를 익혀 지식을 넓혀가고자 노력한다. 개인의 배경지식을 이용한 추론이 아닌 음운론적인 지식 체계와 어휘 등의 기초 능력을 요구하는 유형의 문항은 어휘력이 부족한 하위집단의 학생들에게는 추론이 아닌 선택적으로 듣기가 이루어지는 상향식 이해 문항에서 더 어려워하고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Harada(1998)는 상향식 이해 과정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는 한 예를 제시하였다. 대학의 어느 교수가 강의 시간에 "commonest"라고 한 말에 수업을 듣는 제2언어를 학습하고 있는 학생이 이를 듣고 "Communist"라고 자신의 노트에 적었다. 이는 분절음 측면에서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초보자들 중 상위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은 이미 학습을 통하여 어휘력을 습득한 상태이긴 하나 내용에 관한 배경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하향식 이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듣는 자료에 근거하여 어휘를 찾아내고, 단어나 구문을 분석함으로써 의미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인 사실적 이해 문항에서는 음소나 문장에 나타나는 억양 구별, 단어 식별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이를 방해하는 요소로서 축약 형태(reduced forms)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보편적인 축약 형태는 "be, have, will would"등의 조동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I'm

happy," "She's a nurse," "He's lost ten pounds," "They've already left," "I'd like to be rich," "Djeetyet? Did you eat yet?," "I' ll", "When will you be back? Tomorrow, maybe(통사론적 축약형), "Mom! Phone!(화용론적 축약형) 등이 있는데 이러한 축약 형태들은 말하기와 연결하여 혼란을 하는 것이 좋다. 영어는 강세(stress), 리듬(rhythm), 억양(intonation) 등의 영어의 운율적 자질을 익혀야 한다. 영어는 강세박자(stress-timed) 언어이기 때문에, 강세 사이에 있는 음절들이 순식간에 쏟아져 나오므로써 일부 2언어 학습자들은 엄청난 청취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각각의 문항 분석을 통해서 사실적 이해 문항의 어려움을 찾아볼 수 있다. 축약형태, 어휘의 이해 부족으로 문장의 주요 힌트가 될 수 있는 단어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발음지도는 자음과 모음의 명확한 발음구조나 한 가지 소리만 다른 한 쌍의 낱말에 중점을 두었으나, 현재의 발음지도는 강세와 억양을 포함한 초분절음(suprasegment)을 강조한다. 이는 분절음(자음, 모음)의 단위를 초월하여 뜻의 차이를 야기시키는 요소로 분절음들이 연결되어 이루는 음절, 단어, 구절 등의 초분절적 단위에 나타나는 강세, 높낮이, 억양, 성조, 휴지(pause), 음의 길이 등이 있다. 즉 개별음가를 단순히 대립하여 지도하는 것보다 억양 강세 및 리듬 등을 문맥 안에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분절음은 대체적으로 정상속도의 듣기학습을 통해서 연습, 학습될 수 있는 요소들이라 볼 수 있다.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진정성(authenticity) 있는 자료나 구어가 축약형(contraction), 영어자체의 운율적 특징 등을 담고 있으므로, 정상속도로 학습자들에게 듣기를 진행할 경우, 다양한 강세, 억양, 및 운율에 따른 실질적인 담화 상에서의 의미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느린 속도의 자료보다 정상속도의 자료를 학습자에게 제공하였을 경우, 세부적인 항목(focus on form)의 학습뿐만 아니라 동시에 배경지식

(schemata)을 활성화하여 전반적인 내용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제 2언어를 배우는 초보자들에게 화자의 초분절음 사용법은 듣기이해 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2) 메타인지(Metacognition)

듣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메타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Vandergrift(1997)는 메타인지 전략에 의하여 학습자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들을 내용에 대해 예측하고 오류를 조정, 감독하거나 자신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전략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Rost(2002, p.155)와 Mendelsohn(1995, 1998)의 학습자에게 필요한 듣기 전략에서도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듣기 전 활동하기, 무엇을 왜 들을 것인지 학생들에게 확실히 인식시키기’ 등의 메타인지 전략을 언급하고 있다. 메타인지란 자신의 사고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과,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 계획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과정을 점검·통제하고, 결과를 반성·평가하는 두 가지 인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메타인지의 연구에서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사고 과정이나 문제 해결 과정을 점검·조정하는 인지 측면에서 메타인지 기능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메타 인지는 1970년대 이후에 제시된 개념으로, 기억, 이해, 주의 집중, 의사소통 및 문제 해결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사고를 잘하는 능력은 특히 초, 중, 고교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초보자나 사고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흔히 상황을 지각할 때에 표면적인 특징 중심으로 내용을 범주화하고 지식으로 저장하며, 그런 기준으로 후에 기억에서 꺼내어 쓴다. 관련 일반지식도 부족하며, 그 지식이 작은 단위로, 연결이 안 된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신의 지

식과 사고력을 감시, 조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지식의 내용과 사고 과정의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자신의 사고 기술이 증진되어야 하는지 여부도 잘 깨닫지 못한다. 낮은 수준에 속하는 사람일수록 문제의 쉽고 어려움에 따라, 상황의 유형에 따라 다른 인지적 기술, 사고전략, 다른 단위크기의 지식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약간의 단서만 사용하여, 대강 추측하여 그냥 문제를 풀려고 한다. 불충분한 정보와 자료밖에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사고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즉, 메타인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전문가나 사고를 잘하는 사람들은 많은 지식은 물론, 그 지식의 연결 구조가 표면적 유사성보다는 유의미한 구조로 연관되어 저장되어 있고, 상황이나 문제에 적합한 지식을 적절하게 기억에서 꺼내어 사용하고,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 탐구하고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문제해결을 위하여 충분히 시간을 들이며 충동적 단정이나 반응은 회피한다. 끊임없이 자신의 인지 능력의 수준을 모니터링하며, 문제 유형에 따라, 상황 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인지전략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줄 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 습득의 하위 단계에서 어려움을 주는 상향식 이해과정의 문제 해결책은 문장 속에서 선택적으로 중요한 단어나 초분절음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초보자 중 상위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은 메타인지 전략을 키워 문제해결 능력과 배경지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두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적절한 전략을 구사하고 자신의 문제 해결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듣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평가 도구로 사용된 듣기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듣기 평가 향상을 위해 어떠한 학습 방법과 성향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5. 듣기 평가 및 듣기학습에 대한 설문 결과

본 연구의 평가도구로 사용된 듣기 평가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평소의 학습 방법을 통해 학습 성향을 알아보고자 설문지를 통해 조사해보았다. 설문지 항목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듣기 평가 시험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8문항)에 관한 문항과, 듣기 학습 방법(13문항)에 관한 문항(총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조사에 응한 실험 대상은 듣기 평가 시험에 참여한 동일한 중학생 1학년(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표의 수치는 백분률(%)로 나타내었다.

〈표 18〉 듣기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I

설문지 항목 I	절 대 로	가 끄	보 통	일 반 적 으 로	항 상
	아 니 다	그 려 다	이 다	그 려 다	그 려 다
1)듣기평가가 너무 쉽게 느껴진다.	24.5	27.3	26.4	20.0	1.8
2)듣기평가가 나의 듣기 실력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본다.	17.3	20.9	34.5	22.7	4.5
3)평가문항수가 너무 적다고 느낀다.	68.2	10.0	17.3	2.7	1.8
4)말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한다.	50.0	13.6	23.6	7.3	5.5
5)듣기 시 숫자가 나오면 어렵게 느껴진다.	24.5	35.5	24.5	9.1	6.4
6)그림 삽입된 평가문항을 더 좋아한다.	6.4	12.7	30.9	30.0	20.0
7)시험에 대한 두려움에 가슴이 뒹다.	22.7	35.5	19.1	16.4	6.4
8-1)가장 좋아하는 유형의 듣기 문항은?					
인물, 사진 묘사하기	27.6	대화 장소 추측하기		11.2	
알맞은 그림, 도표 고르기	14.3	두 사람간의 관계 고르기		7.1	
대화를 듣고 필요정보 고르기	4.1	직업 고르기		14.3	
어색한 대화 내용 고르기	5.1	대화의 목적 고르기		1.0	
숫자, 요일, 가격 묻기	8.2	마지막 말에 이어질 응답 고르기		3.1	
화자의 심정 고르기	4.1	무응답		12명	
8-2)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듣기 문항은?					
인물, 사진 묘사하기	3.1	대화 장소 추측하기		4.1	
알맞은 그림, 도표 고르기	3.1	두 사람간의 관계 고르기		2.1	
대화를 듣고 필요정보 고르기	6.2	직업 고르기		0.0	
어색한 대화 내용 고르기	16.5	대화의 목적 고르기		4.1	
숫자, 요일, 가격 묻기	21.6	마지막 말에 이어질 응답 고르기		32.0	
화자의 심정 고르기	7.2	무응답		13명	

위의 <표 18>은 설문지 항목 중 중학생들이 생각하는 듣기 평가 시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으로 총 8문항에 응답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듣기 평가 시험이 너무 쉽게 느껴진다는 질문에 보통이다(26%)를 제외하고 부정적인 응답(52%)이 긍정적인 응답(22%)에 두 배 이상의 수치를 나타냈으며, 자신의 실력을 평가하는데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38%)이 긍정적인 응답(27%)보다 높았다. 그리고 평가 문항 수가 적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지 않다는 응답(78%)이 그렇다는 응답(4%)보다 많았으며, 대화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부정적인 응답(63%)이 긍정적인 응답(13%)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듣기 평가가 어렵게 느껴짐과 동시에 시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듣기 문항 수가 너무 많고, 대화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문항 중 숫자가 나오는 문항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지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다를 제외하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이 60%였으며, 그림을 이용한 문항을 더 좋아한다고 응답(50%)한 수가 많았다. 또한 시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슴이 뛰는지에 대하여 질문에 그렇지 않다(58%)고 응답한 수가 많은 것으로 보아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나 긴장감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형의 시험 문항은 인물, 사진 묘사하기(28%) 유형이 제일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알맞은 그림, 도표 고르기(14%)와 직업 고르기(14%)가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유형으로는 마지막 말에 이어질 응답 고르기(32%)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숫자, 요일, 가격 묻기(22%), 어색한 대화 내용 고르기(17%)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글씨보다는 그림을 이용한 문항을 더 좋아하고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을 싫어하는 것은 시각적인 이미지가 흥미를 끄는 것 일수도 있으나, 그림을 이용하여 답을 추측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들리는 대로 답을 찾아야 하는 상향식 이해문항을 그림을 이용하여 답을 추측하는 것이다. 상향식 이해 문항을 기초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보상적인 전략으로 하향식 이해과정으로 문항을 접근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19〉 학생들의 듣기 학습 성향 및 방법 II

설문지 항목 II	절대로 아니다	가끔 그렇다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모르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내용을 통해 추측해서 그 뜻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2.7	13.6	21.8	37.3	24.5
2) 단어를 외울 때 소리 내어 암기한다.	13.6	26.4	22.7	14.5	22.7
3) 발음 표기법을 읽을 줄 안다.	22.7	32.7	24.5	14.5	5.5
4) 학습 시 듣기/말하기를 연결해 학습한다.	24.5	31.8	31.8	7.3	4.5
5) 영어 팝송을 듣거나 영화를 본다.	31.8	38.2	13.6	8.2	8.2
6) 문장 전체의 의미보다는 단어 하나하나 번역하여 의미를 이해한다.	14.5	29.1	25.5	24.5	6.4
7) 영어권 문화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한다.	26.4	30.0	24.5	9.1	10.0
8) 단어 암기 시 강세와 리듬을 사용한다.	31.8	19.1	34.5	10.0	4.5
9) 새 단어 암기 시 예문을 통해 익힌다.	29.1	30.9	23.6	10.0	6.4
10) 현재 영어학원이나 과외를 받고 있다.	38.5	5.5	13.8	10.1	32.1
11) 평소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있다.	15.5	30.9	27.3	18.2	8.2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무응답
12-1) 언어4영역 중 가장 좋아하는 영역	46.5	12.1	17.2	24.2	11명
12-2) 제일 잘 하는 영역	41.4	15.2	12.1	31.3	11명
12-3)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	19.2	49.5	15.2	16.2	11명
12-4) 제일 싫어하는 영역	18.4	13.3	48.0	20.4	12명
13) 듣기 평가를 대비하여 학습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듣기 방법은?					무응답 4명
학원 책 부록	23.6	TV EBS 방송	5.7	영화감상	16.0
인터넷	27.4	팝송	11.3	영어 학습 CD	16.0

위의 <표 19>는 듣기 학습 시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습방법에 대한 질문(13문항)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이다. 이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질문들을 골라 살펴보도록 한다. 학습자의 학습 유형을 묻는 ‘모르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내용을 통해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질문에 보통이다(22%)를 제외하고 긍정적인 응답(62%)이 부정적인 응답(16%)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문장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우세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단어를 외울 때 소리 내어 암기한다’는 질문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수를 합쳐 6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발음 표기법을 읽을 줄 안다는 질문에 보통이다(25%)를 제외하고 부정적인 응답(55%)이 긍정적인 응답(20%)보다 두 배 이상이 높았다. 이것은 학생들이 발음 표기법을 못 읽는 학생이 읽을 수 있는 학생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듣기 공부 시 듣기와 말하기를 연관 지어 학습한다’라는 질문에 56%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는 듣기를 말하기와 연결 짓는 학생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 듣기 능력을 키우기 위해 ‘팝송이나 영화를 본다’는 질문에 보통이다(14%)를 제외하고 70%가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단어를 외울 때 ‘강세와 리듬을 고려하여 학습한다’는 질문과 ‘예문’을 통하여 학습한다는 질문에 각각 51%, 60%의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으며 이것은 어휘를 외울 때 강세나 리듬을 고려하지 않고 또한 예문을 통한 학습을 하지 않는 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언어의 네 영역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역은 듣기(47%)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가장 잘 하는 영역 또한 듣기(41%)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은 말하기라고 학생의 절반 수(50%)가 응답하였다. 네 영역 중 제일 싫어하는 영역은 쓰기(48%), 읽기(20%) 순으로 나타났다. 듣기 시험을 대비하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듣기 방법은 인터넷이 27%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

음으로 학원을 통하여 학습(24%)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설문 조사 중 듣기 학습 성향에 대해 살펴보면, 듣기와 말하기를 연관시키지 않고 강세와 리듬, 예문을 통한 학습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 기초적 지식을 배우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식 이해과정을 돕는 학습 훈련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듣기 이해과정별 전략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영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때, 듣기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의 첫 단계로써 다른 언어 사용 능력과 함께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만들어 내는데 중요한 발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모국어를 습득하듯이 많은 영어 입력을 처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바람직한 언어 학습이 되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 사용의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고 영어 자료의 입력이 거의 교실에서만 일어나는 EFL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듣기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영어 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의 습득을 중시하고 있다. 언어영역 중 듣기능력이 의사소통을 위해 기본으로 갖춰야만 하는 능력임은 자명하다.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말할 수도 없으며 청취력의 증진이 언어의 다른 영역 (speaking, reading, writing)의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의 발판이 되는 듣기가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어떠한 취약점을 보이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영어 듣기 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듣기 이해과정을 밝히고, 문항을 듣기 이해과정별로 분석하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듣기 이해과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듣기 수준에 따라 상, 하로 구분하여 각 집단에서 학생들의 듣기 이해과정의 성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7학년도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듣기 평가 1회를 서울에 소재하는 모 중학교 1학년 4개 학급(총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답안지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 도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듣기 향상을 위한 학습 방법을 살펴보고자 동일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고전검사 이론인 문항의 난이도, 문항의 변별도, 선택지

반응률 세 가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듣기의 중요성, 듣기의 이해과정, 중학교 듣기 평가 실시 현황 및 목적, 문항 분석 방법 및 판단 기준표, 학습자에게 필요한 듣기 지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실시되는 듣기평가는 상향식, 하향식, 상호작용적 이해과정의 문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총 20문항 중에서 상향식 이해과정 35%, 하향식 이해과정 60%, 상호작용적 이해과정 5%를 차지했다. 평가와 학습의 상관관계측면에서 볼 경우, 듣기 평가에서 모든 이해과정이 다 평가되고 있음은 실제의 수업 현장에서도 세 이해과정의 반복 연습과 이해가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듣기 평가의 문항 중에서 상향식과 하향식 이해과정에 비하여 상호작용적 이해과정을 평가하는 문항의 수가 너무 적어서 상호작용적 이해과정의 충분한 자료를 얻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이 듣기 평가의 경우 학생들의 상호작용적 이해과정에 관한 능력을 올바르게 평가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둘째, 고전검사 이론에 의하여 평가 도구를 분석한 결과 평균 점수 73.18, 평균 난이도 0.74로 전체적으로 볼 경우 적절한 문항에 속하는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평균 변별도는 0.18로 전반적으로 변별력이 매우 낮은 별로 좋지 않은 문항에 속하는 수치를 보였다. 어려운 문항이 어느 정도 출제되어야 변별력이 있고 이에 따라 시험자의 수준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좋은 문항에 속하나 이번 평가 도구는 어려운 문항은 없고 적절한 문항이 총 9문항, 쉬운 문항이 총 11문항으로 변별력이 없으며, 학습자들의 지적 발달과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는 않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높은 점수는 100점이고, 가장 낮은 점수는 20점까지 점수의 폭이 넓은 편이었다. 선택지 매력도는 문항의 질을 좌우한다. 정답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택지에 골고루 응답한 수치를 보이는 것이 좋으나 몇 문항을 제외하고 선택지 매력도가 낮은 문항이 적

지 않았다. 그러므로 문항의 질을 높이기 위해 듣기 평가 문항 중 수정되어야 하거나 과감히 버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구 대상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 세 이해과정 중에 상향식 이해과정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향식 이해과정의 오답율이 27.16%로 하향식 이해과정의 오답율 26.70%와 상호작용적 이해과정의 오답율 15.74%에 비해 수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상향식 이해과정에 취약한 이유는 어휘 부족과 이와 관련된 초분절음, 메타인지의 이해 부족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선택적으로 듣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사실적 이해 문항은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들을 것인지를 먼저 제시해 주어 학습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넷째, 학생들을 상위권, 하위권의 두 집단으로 분류해서 각 그룹의 성향을 알아본 결과, 상위권에서는 하향식 이해과정의 오답율이 가장 높았고, 상향식 이해과정, 상호작용적 이해과정 순으로 어려움을 나타냈다. 하위권 집단의 경우 상위집단과는 다르게 상향식 이해과정에서 오답율이 가장 높았고, 하향식 이해과정, 상호작용적 이해과정 순으로 어려움을 보였다. 각 집단의 학생들의 성향이 다르므로 듣기 수업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하위권 집단의 경우 상향식 이해과정의 연습을 통해 부족한 이해과정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초급 단계에 필요한 지식을 쌓고 고급 단계로 올라갈수록 수준 높은 생각과 추론 능력을 필요로 한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상향식 이해과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취약한 부분을 미리 알고 그에 맞는 수준별 듣기 수업을 실시해야 하며, 수준별로 특히 부족한 이해과정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학생들에게 상향식, 하향식, 상호작용적 이해과정의 다른 점을 이해시키고 필요한 이해과정에 맞는 전략을 가르치고 연습한다면 듣기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의 평가 도구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듣기평가를 위하여 어떠한 학습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실시한 설문지(총 21문항) 결과를 분석하면, 영어 듣기 평가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자신의 실력을 평가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수가 많았다. 가장 선호하는 유형의 문항은 ‘인물, 사진 묘사하기’ 였으며, 가장 싫어하는 유형은 ‘마지막 말에 이어질 응답 고르기’ 라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이 듣기 향상을 위한 학습 방법 설문 조사 문항에 대하여 많은 학생들이 문장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나 듣기와 말하기를 연관 지어 학습하는 학생의 수는 적었다. 그리고 소리 내어 단어를 암기하고 있으나 강세와 리듬, 예문을 고려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언어영역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는 차이를 보였다. 가장 좋아하고 잘 하는 언어 영역은 듣기라고 응답하였으며, 싫어하는 영역은 쓰기, 읽기 순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은 말하기라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듣기 학습 방법은 인터넷, 학원을 통한 학습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볼 때, 전체 집단으로는 상향식 이해과정, 두 집단으로 나누었을 경우는 상위집단에서 상향식 이해과정, 하위집단에서는 하향식 이해과정에서 어려움을 나타냈다. 이는 듣기 지도 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듣기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영어를 가르칠 때 듣기 이해과정의 균형을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위집단의 학생들은 언어적 능력(linguistic ability)이 필요할 경우 자신의 약한 언어 기술을 보상하고자 하향식 이해과정을 갖추어야 할 요소라기보다는 하나의 보상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듣기 자료(oral text)의 내용이 무엇이나에 따라서 듣기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듣기 수업 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배경지식을 넓히는 것이 좋으며,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별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먼저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과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논문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해과정에 대한 연구를 실제적인 교수활동을 통한 비교 없이 제시하였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듣기 이해과정의 지도 방안을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시키거나 개인에게 부족한 이해과정을 보완하는 연습을 하는 수준별 수업의 효과에 대한 검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중학교 1학년에 한정되어 이루어진 연구를 각 학년별로 구분하여 비교하거나,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어려움을 느끼는 이해과정의 비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피험자 집단의 수준과 특성에 의하여 문항특성이 달리 분석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고시 제 2007-79호 외국어과 교육과정(I) [별책 14]*. 교육인적자원부.
- 변영계. (2000).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학지사
- 배두본. (2000). *외국어 교육 과정론: 이론과 개발*. 한국문화사
- 성태제. (1996). *문항제작 및 분석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 성태제. (2002). *현대교육평가*. 학지사
- 이완기. (2003). *영어 평가 방법론*. 문진미디어.
- 이정원 역. (2005). *언어평가의 이해*. 경문사
- 이종혁. (1992).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효과*. 영어교육, 44, 3~21.
- 오성숙. (2005). *영어 듣기 지도방안 연구: 중학교 영어 듣기 평가 문항분석을 통하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윤상희. (2006.02). *영어듣기 능력 함양을 위한 Dictogloss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중학교 심화반 학생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장혜진. (2005). *고교 영어듣기능력평가 문항 분석-15개 시도 교육청 주관 평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정종진. (1999). *학교 학습의 극대화를 위한 교육, 평가의 이해*. 양서원
- Brown, H. Douglas.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4th Ed.)*. White Plains, NY: Addison Wesley Longman.
- Brown, H. Douglas. (2001). *Teaching by principles :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2nd Ed.)*. White Plains, NY: Addison Wesley Longman.

- Brown, H. Douglas. (2004). *Language assessment: Principles and classroom practices*. Longman.
- Celce-Murcia, Marianne. *Discourse and context in language teaching: A guide for language teaching*. Cambridge.
- Celce-Murcia, Marianne. (2001).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Heinle & Heinle.
- Ertmer, P.A. & Newby, T.J. (1996). *The expert learner: strategic, self-regulated, and reflective*. Instructional Science 24: 1-24.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Guthrie, T. John. (1981). *Comprehension and teaching: Research reviews*.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Hedge, Tricia. (2000).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language classroom*. Oxford University Press.
- Lado, Robert. (1961). *Language testing: The construction and use of foreign language tests*. Toppan International Edition.
- Mendelsohn, D. (1998). *Teaching listening*.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8, 81-101.
- Metcalf, Janet. & Shimamura, P. Arthur. (1996). *Metacognition: Knowing about knowing*.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Morley, J. (1991). *Listening comprehension in second/foreign language instruction*. Boston: Heinle & Heinle.
- Nunan, David. (1989). *Designing tasks for the communicative*

- classroom*. Cambridge Language Teaching Library.
- Nunan, David. (2003). *Practical English language teaching*.
International Edition.
- Richards, C. Jack. (1985). *The context of language teaching*.
Cambridge Language Teaching Library.
- Rost, M. (1990). *Listening in language learning*. London:
Longman

ABSTRACT

The Study of Language Comprehension Through the Analysis of Items of the Middle School English Listening Test

Kim, Hwa kyung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From a communicative, pragmatic view of the language classroom, listening and speaking skills are closely intertwined. Comprehension abilities precede productive skills in learning a language. Skills acquired through listening transfer to other skills. Therefore it is obvious that listening would be the scaffolding for other language territorie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analyze language comprehension through a listening test for the first grade of middle schools. The listening test was divided into three comprehension processing to get to know what processes students had a difficulty most; bottom-up processing, top-down processing, interactive processing.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difficult processing the students had for comprehension. Students were also divided into low and high Levels in order to know how different they had the difficult processing.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conducting the listening test given simultaneously by 15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The listening test was conducted for five days at middle schools in Seoul and the survey was done before or after the listening test. The 110 participants consisted of the first grade of middle schools in Seoul. In order to analyze the listening test done by them, Classical Test Theory was used; Item Facility, Discrimination Index, Distractor Efficiency. Both the listening test and the survey were collected to analyze students' comprehension processing and learning inclination to English listening.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listening test included 35% of bottom-up processing, 60% of top-down processing and 5% of interactive processing. It showed that it was necessary to provide more items of interactive processing.

Second, the item facility of the test was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criterion. However the numerical value of the discrimination index was too low to evaluate students as well as the distractor efficiency.

Third, the participants had a difficulty in bottom-up processing most among three processes. To help compensate for them, learners may need to make use of linguistic systems

to extract an important detail from ongoing speech. They need to know what will hear before listening.

Fourth, the difficult processing students had a difficulty was different when the students were divided into the low level and high level. The low level had a problem in bottom-up processing. Low levels may use top-down processing to compensate for their weak linguistic abilities, rather than as a goal to be achieved. Beginners who are in low levels need to learn to control the phonological code of the target language sufficiently to be able to use the richness of the cues at low level. However the high level had a difficulty in top-down processing. High levels were characterized by fluent use of bottom-up processes more than low levels. Therefore they need to enhance metacognitive strategies. They involve the planning, regulating,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listening. It is also related to listening strategies; activating learner' s background knowledge. The balance between different types of processing is crucial for L2 language teaching.

Fifth,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ed that the students might think the listening test was difficult for them and it lacked to evaluate their listening abilities. The item they like most was 'describing pictures and people' and the item they don' t was 'choosing the answer that will come after the last speech' . According to the way students study, they did not care about the phonological system. It turned that they did not

study the strategies they actually needed. Therefore practices to improve the bottom-up processing would be necessary for them.

It is generally acknowledged that low levels and beginners cannot operate well with bottom-up processing. It is a good idea to draw students' attention to the way speakers use stress to give some words. It is necessary to raise students' awareness of what reduced forms are and how stressed and unstressed syllables play a role in their formation. It is well worth explaining this to students so that they will be led to believe that comprehension is possible because of this success.

제1회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중1)
2007. 4. 11(수) 시행 제1학년 반 번 이틀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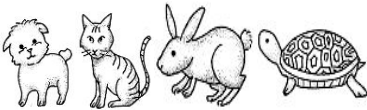
1. 다음 그림을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고르시오.



- ① ② ③ ④

2. 다음을 듣고, 남자가 기르는 애완동물을 고르시오.

- ① ② ③ ④



3. 대화를 듣고, 여자가 John의 생일 선물로 살 것을 고르시오.

- ① ② ③ ④



4. 대화를 듣고, 제주의 오늘 오후 날씨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① ② ③ ④



5. 다음을 듣고, 두 사람의 대화가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 ① ② ③ ④

6.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고르시오.

- ① \$2 ② \$4 ③ \$6 ④ \$8

7. 대화를 듣고, 여자의 심정을 고르시오.

- ① 우울하다 ② 지루하다
③ 화가 난다 ④ 자랑스럽다

8. 대화를 듣고, 현재 시각을 고르시오.

- ① 7:10 ② 7:15 ③ 7:50 ④ 8:10

9.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이용할 교통수단을 고르시오.

- ① 택시 ② 버스 ③ 지하철 ④ 자전거

10. 다음을 듣고, 나와 남동생을 비교한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 ① 키 ② 취미
③ 머리 길이 ④ 장래희망

11. 다음을 듣고, 두 사람의 일과표를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To Do" Lis	Tommy	Jackie
gets up	7:00	6:30
eats breakfast	7:30	7:10
goes to school	by bike	by subway
does homework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 ① ② ③ ④

12.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고르시오.

- ① 전화번호 안내 ② 미아보호 방송
③ 애완동물 리본 판매
④ 잃어버린 동물 찾기

13. 대화를 듣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고르시오.

- ① 방송국 ② 옷가게
③ 음반가게 ④ 장난감가게

14.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설명인지 고르시오.

- ① 클럽 소개 ② 체스 대회
③ 학교 자랑 ④ 학습 계획

15.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① 집원 - 손님 ② 교사 - 학생
③ 승무원 - 승객 ④ 은행원 - 고객

16. 대화를 듣고, 여자가 현재 희망 하는 직업을 고르시오.

- ① 교사 ② 의사 ③ 과학자 ④ 작곡가

17. 다음을 듣고, Mike가 전화를 건 목적을 고르시오.

- ① 약속 취소 ② 파티 초대
③ 친구 소개 ④ 주문 확인

18. 다음 대화에 이어서 두 사람이 하게 될 일을 고르시오.

- ① 중국음식점에 간다.
② 피자를 먹으러 간다.
③ 시장에 장을 보러 간다.
④ 부엌에서 음식을 만든다.

[19~20]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9. ① Thanks a lot. ② See you again.
③ How are you? ④ Nice to meet you.
20. ① Cheer up! ② Have fun.
③ That's great! ④ No, thanks.

◆ 중학교 영어 듣기 평가와 학습전략에 대한 설문 조사 ◆

다음 설문지의 항목들은 중학생들의 영어 듣기 평가에 관한 의견과 듣기전략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정답이나 오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낌이 얼마나 동의하는가에 따라 다음의 5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적절한 번호를 골라 각 문항 앞의 빈칸에 써 넣어 주세요.

- 1.절대로 아니다 2.가끔 그렇다 3.보통이다 4.일반적으로 그렇다 5.항상 그렇다

1. _____ 나는 듣기평가가 너무 쉽게 느껴진다.
2. _____ 나는 듣기평가가 나의 듣기실력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본다.
3. _____ 나는 듣기평가 문항 수(20문항)가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4. _____ 나는 듣기평가 시 대화 속도(말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한다.
5. _____ 나는 듣기평가 문항 중 숫자가 나오면 갑자기 어렵게 느껴진다.
6. _____ 나는 듣기평가 시 그림을 이용한 문항을 더 좋아한다.
7. _____ 나는 영어 듣기 평가 시 시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슴이 뻐근하다.
8. _____ 나는 모르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내용을 통해 추측해서 그 뜻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9. _____ 나는 단어를 외울 때 소리 내어 암기한다.
10. _____ 나는 발음 표기법을 읽을 줄 안다.
11. _____ 나는 영어 공부 시 듣기/말하기를 연관 지어 학습한다.
12. _____ 나는 영어 팝송을 듣거나 영어 대사로 된 영화를 본다.
13. _____ 나는 문장 전체의 의미보다는 단어 하나하나 번역하여 의미를 이해한다.
14. _____ 나는 영어권 문화에 대해서 배우려고 노력한다.
15. _____ 나는 새로운 영어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 강세와 리듬을 사용한다.
16. _____ 나는 새로운 단어를 암기 시 예문(문장)을 통해서 익힌다.
17. _____ 나는 지금 영어학원에 다니고 있거나 과외를 받고 있다.
18. _____ 나는 평소에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있다.
19. 다음 중 가장 좋아하는 듣기문항은 _____ 번이고, 가장 싫어하는 문항은 _____ 번이다.

- ①인물,사진 묘사하기 ②알맞은 그림,도표 고르기 ③대화를 듣고 필요정보 고르기
 ④어색한 대화내용 고르기 ⑤숫자,요일,가격 묻기 ⑥화자의 심정 고르기
 ⑦대화 장소 추측하기 ⑧두 사람간의 관계 고르기 ⑨직업 고르기
 ⑩대화의 목적 고르기 ⑪마지막 말에 이어질 응답 고르기

- 20-1. 나는 듣기 / 말하기 / 쓰기 / 읽기 중 _____을 제일 좋아한다.
- 20-2. 나는 듣기/ 말하기 / 쓰기 / 읽기 중 _____을 제일 잘 한다고 생각한다.
- 20-3. 나는 듣기 / 말하기 / 쓰기 / 읽기 중에서 _____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20-4. 나는 듣기 / 말하기 / 쓰기 / 읽기 중에서 _____을 제일 싫어한다.
21. 나는 듣기 평가를 대비하여 학습 시 _____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학원책 / TV EBS 방송 / 영화감상 / 인터넷 / 팝송 / 영어학습 CD)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